

조선대학교 소식

Vol. 250 2019. 7월호



조선대학교

학생성공을 여는 대학 지역혁신을 이끄는 대학



건학이념

조선대학교는 부강한 국가건설과 세계인류 공영을 위해 봉사하는 영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 개성교육 : 창조적 정신으로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인재를 기른다.
- 생산교육 : 교육의 장과 사회를 연결하는 생산교육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봉사하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 영재교육 : 폭넓은 장학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영재를 육성한다.

교육목적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이념과 본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심오한 학술연구와 교수 및 사회봉사를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개성을 중시하는 창조적 인재 양성
- 국제적 식견을 겸비한 전문인재 양성
-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회지도자 양성
-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인재 양성

조선대학교 소식

No.250 | 2019. 7.



CONTENTS

04	특집
07	핫뉴스
10	커버스토리
14	클릭 캠퍼스
38	이슈 피플
52	입시정보
63	기고
68	중앙도서관
69	연구특성화사업단
74	병원 소식
82	치과병원 소식
83	CU Again 7만2천 발전기금

- 통 권 250호
- 발행인 홍성금 총장직무대리
- 발행처 대외협력처 홍보팀(062-230-6097)
- 발행일 2019년 7월 11일



chosun_univ



chosununi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대학 혁신”

대학 구조 개혁과 경영혁신 추진 성과 상반기 11개 380억원 국비지원사업 수주

조선대학교는 지난 3월 홍성금 총장직무대리체제가 시작되고 학사구조 개편·경영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대학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다.

우선 조선대는 향후 정원은 124명을 감축하고 단과대학은 기존 17개에서 13개로, 모집단위는 86개에서 76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학과도 있다. 사회안전망 특성화를 위한 ‘공공보건안전대학’과 미래 교통수단으로 예상되는 드론형 자동차 개발·전문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 이동체 융합시스템공학부’, 지역문화와 한국문화산업을 선도할 ‘K-컬처 엔터테인먼트’ 전공이다.



홍성금
총장직무대리

조선대의 대대적인 구조개혁 추진은 올 상반기 조선대가 11개의 국고재정지원사업에 연이어 선정돼 약 3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조선대는 최근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역량강화형)’을 포함해 올 상반기에만 11개의 국고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됐다.

11개 사업은 △파란사다리사업 주관대학(교육부) △초기창업패키지사업(중소벤처기업부) 8년 연속 선정 △아세안국가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 연수 운영기관(교육부)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교육부) △주요국가 학생 및 토픽우수자 초청연수 위탁기관(교육부) △전라·제주권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교육부) △대학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역량강화형(교육부)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교육부)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교육부)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교육부) 등이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홍성금 총장직무대리는 “학교 구성원들이 대학의 현실적 위기 상황을 직시해 문제점 해결에 집중했고, 타 대학과의 치열한 경쟁구도 인식 하에 이를 극복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홍 총장직무대리는 조선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현재 수주한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학의 신뢰도에 대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며 둘째, 국가산업 및 지역연계 특성화, 외국유학생 유치, 평생학습지원 체제를 발전시켜 대학의 지속성을 확립하고 셋째, 행정단위 및 재정구조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의 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직무대리는 “이 모든 일들은 대학 중장기발전 계획을 근간으로 지속적인 학사구조 개혁과 교육과정·교수학습 혁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조선대 2019년 상반기 재정 지원 사업 선정 현황 ●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금액	내용	주관 부처
1	2019년파란사다리 사업주관대학	2019. 4. ~ 10.	3.1억	*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와 진로탐색 경험 제공 * 진로역량개발 및 진로개척의 기회를 열어주고 사회진출 전 출발점을 높이는 국제역량강화사업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2	2019년초기창업 패키지사업	2019. ~ 2020.	1년 15.1억	* 지역(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성공 창업자 육성 * 교내·외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프로그램운영 및 지원 * 8년 연속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3	아세안국가 우수이공계대학생초청 연수운영기관	2019. 7. ~ 8.	1.3억	* 아세안 10개 국가 이공계학생을 선발하여 전공교과 강의 및 실습,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국제적인 대학홍보효과 제고 및 유학생 유치확대 기반조성 * 3년 연속선정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4	사회맞춤형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 사업(산학협력고도화형)	2019. 3. ~ 2022. 2.	3년간 최대 약 120억	* 지역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톱클래스 산학협력 사업 추진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5	주요국가학생 및 토픽우수자 초청연수위탁기관	2019. 7. 9. ~ 7. 19.	2회 1.3억	* 주요국가 및 토픽 성적 우수 대학생을 초청하여 한국 문화 연수를 시행하는 위탁기관으로 전국에서 1개 대학 선정 *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학생 유치 확대기반을 조성하는 글로벌대학 위상제고사업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6	전라·제주권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2019. 5. ~ 12.	1.3억	* 교육기부 현장에 체육대학의 전문 학생운동선수들을 파견하여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7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2019. ~ 2022.	4년간 30억	* 광주광역시 유일의 고등교육 평생학습지원 기관 * 성인학습자 친화적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통한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사업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8	대학혁신지원사업 II 유형(역량강화형)	2019. ~ 2021.	3년간 약 110억	*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 지원 및 경쟁력 제고 *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교육시스템구축을 통한 미래형혁신인재양성	교육부
9	2019년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사업	2019. 3. ~ 2020. 2.	1년 약 10억	*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고 중·고교, 대학간 연계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우수인재양성에 기여 * 12년 연속선정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0	인문학플러스 (HK+)지원사업	2019. ~ 2025.	7년 약 82억	* 인문학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거점이자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지역인문학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연구주제: 동아시아재난의기억, 서사, 치유-재난인문학의정립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11	교원양성대학시민 교육역량강화사업	2019. ~ 2022.	4년 5.4억	* 예비교원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높이고 학교에서의 실천과 적용 프로세스 구축 * 광주·전남 유일선정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조선대학교

POINTS OF PRIDE

RANKINGS

#1 전국 일반대학 교직원
설치학과 승인(2018년)

#1 2017~8년 외부연구비
호남권 사립대 순위

#1 호남권 최초
인공위성 발사성공

#1 조선대병원 4대암
적정성평가 광주최고등급

172 법조인

5,394 군장교 임관

약 5,500 교원 임용

205,353 동문

STRENGTH IN NUMBERS

8,919

의사 배출 인원 수

5,324

약사 배출 인원 수

학위수여 인원 (SINCE 1946)

179,455

학사수여

21,908

석사수여

3,990

박사수여

97.5%

재학생 유지율

STUDENT SUCCESS

QUICK FACTS

2018년 과학계 10대 뉴스

한국인 표준뇌지도 활용 치매예측기술,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사업단

국고재정지원사업비 총 1,721억 원

2016~2019년 기준 / 대응자금 포함

2019년 상반기 국책사업수주 380억 원

11개 사업 선정 / 2019.3~5월 기준

해외이공계 학생 연수기관

아세안국가 우수 이공계대학생 연수기관

19,240

재학생

1,852

대학원생

2,496

교직원

13

단과대학

76

학부(과)

1,132

유학생 수

50

유학생 출신국가

2019년 6월 기준

미국 국립보건원(NIH), 한미 유전체 연구에 5년간 총 100억 원 규모 지원 결정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이 미국 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한미 유전체 연구에 5년간 총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지원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치매 유발 유전자 발굴을 위한 한국인 유전체 해독작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치매유전체게놈사업’은 치매환자를 비롯해 한국인 4천 명의 유전체 게놈을 해독하고 이를 토대로 치매를 유발하는 유전인자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4천 명의 유전체 시료는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이 지난 8년간 구축한 광주치매코호트 사업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대규모 유전체 게놈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우리 정부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1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5년간 실행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한화로 1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에서 실행되는 질병 유전체 게놈 분석사업 중 최대 규모이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가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한 연구개발 사업으로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유전체게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국 측 총괄책임자인 미국 보스턴대학 석좌교수이며 치매유전체 분석에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린지패럴 박사가 지난 주말 한국을 방문했다. 이 방문에서 향후 추진될 한미 공동협력연구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 이진호 단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한 ‘한국인 치매유전체게놈’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치매국책연구단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치매예측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 봤다.

치매국책연구단이 지난 8년간 지역민을 대상으로 구축한 광주치매코호트 DB에는 참가자들의 임상진단 결과뿐만 아니라 초정밀 MRI 뇌사진 등 다양한 생체의료 데이터가 전방위적으로 축적·관리되고 있다.

이번 ‘한국인 치매유전체게놈사업’ 사업을 통해 개인 유전체 정밀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환자별로 치매 유발 유전적 요인을 세분화할 수 있고, 치매를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별 맞춤의료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 경기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선대에서 개최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꽃이자 최고 인기종목인 하이다이빙 경기가 조선대에서 열린다. 하이다이빙 경기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다.

하이다이빙 경기가 이번 대회 입장권 중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하이다이빙은 조선대 축구장에 약 27M의 높이로 다이빙대와 임시수조를 설치해 진행된다.

하이다이빙은 아파트 10층 높이가 넘는 아찔한 높이에서 지름 15m, 깊이 6m 수조로 뛰어내린다. 남자는 27m, 여자는 20m 높이의 도약대에서 자유 낙하해 3초 이내에 선수의 발이 수면에 닿아야 하는 경기다.

하이다이빙 경기는 종목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이 포착되며 다이버의 공중 예술연기와 함께 광주시 전경과 무등산이 함께 어우러져 TV영상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될 예정이다.

경기일정

7. 22.(월) 12:30 ~ 15:30 (예선) 남 27m, 여 20m

7. 23.(화) 12:15 ~ 13:45 (결선) 여 20m

7. 24.(수) 12:00 ~ 13:30 (결선) 남 27m



미국 휴스턴 ‘휴렛팩커드’사 수석디자이너 정재규



Hewlett Packard | Senior Industrial Designer **Jaekyu Jung**
디자인학부 2004년 입학, 2011년도 졸업

일찍 정했던 목표.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정하고 산업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미대진학을 목표로 수능과 실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고3 때 응시했던 수능시험을 부진하게 보았고, 미대입시의 절반이 달린 실기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수능 다음날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면 화실에 가장 먼저 도착하였고 가장 늦게 자정 12시에야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세수를 하면 얼굴에 묻었던 검은 연필가루가 씻겨 나왔습니다.

기적 같았던 입학.

부단히 노력하며 준비했던 실기 덕분인지 2004년 기적같이 조선대 미대/디자인학부에 입학하게 됩니다. 1학기가 끝나갈 무렵 용무 차 들른 학과실에서 입시 성적을 보았습니다. 뒤에서 3번째에 위치한 제 이름을 보게 되었고, 비록 입학은 뒤에서 3번째로 했지만, 졸업할 때는 앞에서 3번째 안에 들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군 제대 후, 복학하여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제품디자인. 누구나 그렇듯이 공모전에 나가고 싶어서 찾아본 국제 공모전들. 하지만 그 벽은 높았고 현실은 3d 소프트웨어 하나 다루지 못하는 갓 복학한 복학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3d cad는 할 줄 몰랐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독학으로 배워둔 포토샵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3d cad와 rendering에 공을 들이는 대신,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시간을 더욱 많이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조선대 미대 최초로 Red dot design award(3대 국제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에 입상하였습니다. 지레 스스로의 한계를 제한하고 포기하였다면 얻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스카이 디자인즈 커뮤니티.

대학교 3학년 때, 각 학교에서 최고의 학생들만 모인다는 스카이 디자인즈 커뮤니티에 지원을 하였고, 3차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고 탈락하게 됩니다. 재학 시절 마지막 기회였던 다음해 4학년, 재차 지원하여 도전하였고, 최종합격하게 됩니다. 지방대 출신이라고 위축되고 싶지 않아 동계 프로젝트의 팀장을 자원하였고, 이어진 동계 프로젝트까지 총 1년의 인턴십 활동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팬택 신입사원.

1년간의 인턴십 활동의 종료 그리고 평가와 함께, 팬택에 정시채용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영어면접까지 요구하는 채용과정에 그 흔한 영어점수 하나 없이 지원하여 명문대학 출신들 동기들과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을 디자인 포트폴리오에 모두 쏟아냈고 이 같은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스무 살의 꿈이 현실로.

팬택에서의 약 3년여의 회사생활을 뒤로하고,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해외 취업을 위해 2013년도를 마지막으로 팬택을 그만두고, 새로운 포트폴리오 준비에 몰두하였습니다. 스무 살에 우연히 보게 되었던 실리콘밸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키워오던 꿈을 이루기 위해 몇 달간 포트폴리오를 다듬고 다듬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큐멘터리 속에 나왔던 하나의 회사가 hp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소셜 미디어에서 보게 된 채용공고에는 단 세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3년 이상의 경력, 디자인 포트폴리오,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자. 앞의 두가지 조건은 충족되었지만, 이번엔 영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안 되더라도 물어나 보자'는 마음으로 하단에 적혀 있던 이메일로 문의 메일을 보냈고, 다음날 우선 포트폴리오라도 보내보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오던 포트폴리오를 주어진 시간 내에 잘 마무리하여 보냈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인터뷰 요청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약 3차례의 인터뷰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HP Asia center가 있는 Taipei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해외생활.

영어나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회사는 물론 퇴근 후의 일상조차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끼니를 때워야 했던 그 상황은 타지인 해외에선 그 외로움의 깊이가 더욱 크게 다가왔었고, 그래서 처음 한 달간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4~5개국의 엔지니어, 마케터들이 모인 컨퍼런스콜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행여 질문이라도 날아오면 로그아웃 후 30분 뒤에 메일을 보내 “인터넷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질문을 잘 못들었다. 메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프기도 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밤을 꼴딱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콜업.

그렇게 대만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의 시간이 흐른 후, 디자인센터가 있는 휴스턴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외에 있는 지사에서 1년을 거주하였으니,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L1 미국비자 취득자격 또한 갖췄습니다. 그렇게 약 반 년간의 비자 준비 과정을 거친 후 2016년 3월 그토록 꿈꾸던 미국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영어권 국가였던 대만에서 근무했던 1년 반의 생활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미국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영어공부를 시작하였고, 그중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가, 수십 개의 미국 보험사에 매일 아침 전화하여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일인데, 다양한 인종과 성별 악센트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해줬던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직장생활도 4년차로 접어들니다.

실리콘밸리를 향해.

스무 살에 가졌던 실리콘밸리를 향한 꿈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디자이너로서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예요.
자신의 대학생활 4년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자신이 해왔던 작업들,
어떤 프로세스들을 잘 녹여가지고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잘 맞춰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Q. 요즘 국내 취업시장에서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힘들다는 말을 듣다 보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혹시 해외로 취업을 원한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디자인과의 기준으로 본다면 해외 취업을 할 때, 일단은 디자인을 하러 가는 거지 사실 뭔가 영어로 막 유창하게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디자이너로서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예요. 자신의 대학생활 4년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자신이 해왔던 작업들, 어떤 프로세스들을 잘 녹여가지고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잘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수를 모으는 비실용적인 영어보다는, 내 의견을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회화위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할 때 '토익 몇 점

이에요?' '토픽 몇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거든요. 인터뷰를 바로 해요.

Q.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일단은 무언가를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자신이 가진 다른 장점이 있다면 저는 그런 장점이 약간의 결점을 커버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시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라는 것은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또한 인턴십이나 멤버십 경험을 하지 못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3학년이나 4학년쯤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인턴십이나 멤버십제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리 졸업을 하기 전에 실무도 해보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을 보강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선대학교 제17회 장미축제 개최

‘오롯이 장미’

전국적인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조선대학교 장미원에서 펼쳐지는 제17회 장미축제가 5월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2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장미축제는 평년보다 빨라진 봄꽃의 개화 시기와 5.18 추모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겨 개최하였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이번 장미축제는 ‘오롯이 장미’라는 주제로 장미원 관람 행사를 중심으로 운영했다.

장미원에서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장미음악다방, 단오부채만들기, 민속놀이체험, 폴라로이드 사진 등의 프로그램과 포토존이 운영되었다.

축제기간 동안 비록 꽃이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장미원 곳곳에서 화려한 꽃망울을 터트린 장미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기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이번 장미축제는 대학 고유 브랜드로 자리 잡은 장미축제의 개최 목적인 지역민에 대한 보은과 대학 인프라의 지역 공유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축제기간 중 이전에 시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던 주차장을 이번에는 무료로 개방했다. 또한 박물관, 장항남 박물관, 미술관, 김보현 미술관 등 대학 역사문화 기관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대 김보현 미술관에서는 개관 30주년을 기념하여 남도화단의 모태인 조선대 화파를 조명하는 특별전〈찰나의 빛, 영원한 색채, 남도〉을 개최하였다. 조선대화파라 불리는 오지호를 비롯해 임직순, 백영수 등의 작가들은 남도의 강렬한 빛과 풍요로운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아 색의 조련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특별전은 남도화단 특유의 색채의 화려함과 색채 조합의 진원지에 대해 파악해 보는 기회이자 한국 미술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전시였다.

조선대 미술관에서는 현대조형미디어전공 과제전〈퓨전〉이 열렸다. 이 전시는 퓨전의 의미처럼 입체작업과 평면작업, 그리고 미디어작업을 섞고 풀어내며 독창적인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어냈다.

박물관에서는 약10만 년 전에 시작된 호남 역사의 시작과 발달과정을 볼 수 있는 〈구석기인들의 낙원, 보성강〉특별전이 열렸다. 지난 20여 년간 박물관 연구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발굴했던 유물들을 통해 호남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시원에 다가서려는 뜻에서 기획된 전시였다.

170년 정보통신의 역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17점의 전시물 등 4,500여 점의 정보통신기기가 전시되어 있다. 지금은 보기 힘든 오래된 전화기, 라디오, TV, 안테나, 컴퓨터와 에디슨의 축음기, 타이타닉호에서 사용하던 모르스키 등 특생 있는 기기들을 만나볼 수 있어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조선대학교 장미원은 2001년 5월 의과대학 동문을 중심으로 모교와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학생들이 감성을 키우고 인격을 수양하여 전문지식뿐 아니라 사회의 아픈 곳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전문인이 되기를 바라는 선배 동문이 기부를 하여 2003년 2월에 1차로 조성하였고, 광주은행의 기부금과 지역민, 교직원 및 학생의 뜻을 모아 2008년 9월 현재의 장미원으로 확장하였다.

총면적 8,299㎡에 227종 17,994주의 장미가 식재된 장미원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견학장소는 물론 수많은 관람객이 찾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에는 1946년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7만 2천여 설립동지회원들의 자발적인 출연과 참여로 설립된 조선대학교가 호남 명문 사학으로 성장하도록 성원해준 지역민에 대한 보은의 뜻이 담겨 있다.

특히, 조선대학교 장미원에 식재된 장미 가운데는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에게 봉헌된 프린세스 드 모나코를 비롯하여 세계 장미 콘테스트에서 1등을 차지한 다양각색의 장미들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과시한다.

장미원은 연중무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야간에도 조명이 설치되어 관람이 가능하다.



제17회 장미축제 기념, ‘지역 어르신 초청, 대학과 지역의 따뜻한 동행’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지역민에 대한 보은의 의미

조선대학교가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17회 장미축제를 기념하는 ‘지역 어르신 초청, 대학과 지역의 따뜻한 동행’ 행사를 가졌다.

조선대학교는 조선대학교 노인복지센터와 공동 주최로 5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 70명을 초청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 집행부, 총학생회, 조선대병원, 조선대치과병원, 작업치료학과, 조선대노인복지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초청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매칭되어 함께 장

미원을 관람하며 기념촬영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참가자 모두가 시민르네상스 평생교육원으로 이동하여, 주최 측에서 직접 준비한 삼계탕으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흥을 돋우는 공연을 관람했다.

이어서 독거노인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나눔을 통한 안심케어 프로그램 ‘낙상을 예방해 효(孝)’가 진행되었다. 조선대치과병원의 ‘틀니 및 구강관리 교육’, 작업치료학과와 조선대병원의 ‘균형검사 및 기초건강검진’ 등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조선대학교 총학생회가 준비한 '꽃보다 청춘 Rose Festival'



백경민

최지원

글: 백경민, 최지원 학생기자 (홍보대사)

2019년 5월 9, 10일에는 비상 총학생회가 준비한 '꽃보다 청춘 Rose Festival'이 조선대학교 장미원에서 열렸다. 기존 장미축제와는 다른,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축제를 구성했다. '꽃보다 청춘 Rose Festival'은 장미가 피기엔 조금 이른 날짜에 진행되었는데 5월에는 5.18 추모 기간, 장미축제, 공대축제 등 많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꽃보다 청춘 Rose Festival'을 다음날에 있을 장미축제와 이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이 행사를 조금 앞당겨 진행하였다.

조선대학교 총학생회는 인생샷 100% 포토 존, 먹거리 푸드코트, 플리카켓, 야경제와 장미가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다. 이번 '꽃보다 청춘 Rose Festival'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곳은 야경제와 포토존이었다. 이 야

경제와 포토존을 위해 총학생회와 자원봉사 17명 정도의 인원이 고생하였다. 총학생회는 인기가 많았던 만큼 설치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으며 오랜 시간동안 낮에 설치를 하게 되다 보니 힘들기도 했지만 포토존이 인기가 많아 부듯했다고도 전했다.

또한 장미 가왕제가 열렸는데 홍보기간도 짧았고 포토존 설치가 바빠 장미 가왕제에 많은 신경을 쓸 수 없어 예선 없이 본선을 바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다들 수준이 우수했고 시민들도 참가자들의 노래를 들으며 함께 즐겼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또한 심사위원들도 많이 고민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고 전하였다. 심사는 조선대학교 부총학생회장님, 공과대학 회장님 그리고 사범대학 회장님께서 진행했으며 무대 구성력과 가창력을 위주로 심사했다.





‘꽃보다 청춘 Rose Festival’을 마치고 나서 아쉬운 점으로는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꼽았는데 조선대학교 내에는 ‘꽃보다 청춘 Rose Festival’과 관련된 포스터를 붙이기는 했지만 대부분 SNS를 통해 홍보를 하였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하기는 했지만 장미가 피지 않은 탓에 큰 홍보가 된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총학생회가 준비한 축제는 ‘꽃보다 청춘 Rose Festival’이다. 청춘은 있지만 장미가 부족했다. 장미가 많이 폈었

다면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보완해 야경제에 LED장미를 심어 놓은 부분이 좋았다.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축제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 게다가 포토존을 이용해 사진을 찍어 추억까지 가지고 가니 1석 4조인 셈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축제인데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과 학생들이 즐겨주었으니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한다.



조선대학교 미술관 개관 30주년, 새로운 도약

미술관 개관 30주년 기념 및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 전시



조선대학교 미술관은 1989년 1월 미술대학 2층에 건립되어, 1992년 6월에 정식 미술관으로 승인되었다. 2011년에는 본관 1층에 상설전시장으로서 김보현& 실비아우드 미술관이 신설되었다. 우리나라 대학미술관으로는 홍익대학교 미술관(1967년) 이후,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설립되었으며, 지역 미술관으로는 1992년에 문을 연 광주시립미술관보다 3년 앞서 설립되었다.

조선대미술관 개관 당시 개관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황영성 교수는 “조선대학교 미술관의 설립 취지는 예방으로서, 지역미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술관에 대한 바람이 컸고, 지역민에게 그 자긍심과 교양을 전해주는 문화공간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총장이었던 이돈명(조선대학교 제 8대 총장, 1988~1991) 교수에 따르면, “1989년은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출범 50여 년을 맞아, 창설 교수였던 김보현, 천경자, 백영수, 오지호, 윤재우와 같은 한국미술의 거장들이 주도한 남도미술의 흐름을 정리하고자하는 열망과 함께 지역예술의 한계성을 뛰어 넘어,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한 장으로서의 의미를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요구되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989년 개관전 <광주전남미술 50년>을 통해 남도화단을 선구적으로 이끈 외재 허백련, 오지호를 포함한 210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전시하는 위업을 이루었다.

개관 30주년을 맞는 조선대학교 미술관은 남도를 넘어 국제적인 미술관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2019. 07. 12. ~ 07. 28.)에 맞추어 그동안 축적한 저력을 바탕으로 현대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였다.



- 1 세프 _ 무제 (미술대학 옥상 스트리트아트)
- 2 뤼도 _ Human vs Machine
- 3 제이스 _ 무제 (스트리트아트)
- 4 김인경 _ Silent Voyage

1995년 광주 비엔날레 출범, 국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유치, 아트 페어 등 광주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문화수도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수십 년을 앞서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에 주목했던 조선대학교 미술관의 선구적

인 안목과 노력이 바탕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관 30주년을 맞은 조선대학교미술관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사실 그간 조선대학교 미술관은 대학 미술관으로서, 동문출신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와 연구, 보존에 집중해 온 한계도

있었다. 이제 이립(而立)을 맞이한 조선대학교 미술관은 '조선대학교를 넘어, 남도를 넘어'라는 슬로건을 통해 국제화와 함께 동시대 현대미술의 실험 현장으로 변모를 지향한다.

조선대학교 미술관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이 조선

대학교에서 개최된다는 기회를 통해 경기장을 방문하는 국내외 많은 관람객들에게 문화중심도시 광주와 개교 73주년의 조선대학교를 소개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이다이빙 경기장을 마주하고 있는 미술대학 건물 자체를 멋진 예술작품으로 만들고, 경기장에서 미술대학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포함하여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캠퍼스에 아트 벨리를 조성한다는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아트 벨리 조성 프로젝트는 크게 3개로 나뉜다. 메인 전시인 <물, 생명, 상상력>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2층(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 경기장 옆)

조선대학교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국내 작가(금민정, 김인경, 김형중, 박상화, 박선기, 정기현, 황중환)의 현대 설치미술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훌륭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근·현대 남도 미술의 전통을 화려한 색채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찰나의 빛, 영원한 색채, 남도>전이 조선대학교 본관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위의 두 전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서 조선대학교 캠퍼스 곳곳에 스트리트 아트 작업이 펼쳐진다. 이 작업에 프랑스 출신 유명 스트리트 아티스트인 세프(Seth), 제이스(Jace), 뤼도(Ludo)가 참여했다. 스트

리트 아트 진행 과정에 대한 동영상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김승환 관장(미술대학 시각문화규레이터 전공 교수)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아 광주를 찾은 외국인과 타 지역 내국인 방문객들에게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온 남도미술의 역사와 함께 설치미술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잡았다. 아울러 전시를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향이자 문화중심도시인 광주의 진면목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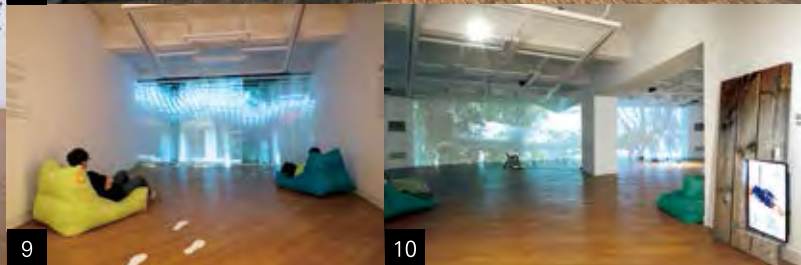
6



7



8



9



10

5 김형중 _ SILHOUETTE-20140416304

6 박선기 _ An Aggregation 20170831

7 황중환 _ Harmony

8 세프 _ 무제 (스트리트아트)

9 박상화 _ 무등판타지아-사유의 가상정원

10 금민정 _ 화전림

조선대학교, KB청소년음악대학 7차 연도 개강식 개최



조선대학교가 KB청소년음악대학 지원 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되며 7차년도 개강식을 지난 5월 18일(토) 오전 10시 30분 조선대학교 음악교육과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7차 연도 참여 청소년과 학부모, 멘토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 축하공연, 조선대 이승권 취업학생처장(프랑스어권문화학과)의 문화예술특강이 진행되었다.

이승권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문화예술의 이해'라는 주제로 예술의 중심지 파리를 소개하고, 청소년들에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예술가를 향한 꿈을 키워나갈 것을 당부했다.

KB청소년음악대학 7차 연도 사업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강원권(강원대학교), 수도권(상명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충청권(나사렛대학교), 경상권(경상대학교), 전라권(조선대학교) 등 총 6개 대학을 권역 내 거점대학으로 운영한다.

대학별로 총 20명의 청소년을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1:1 개인 맞춤형 음악전공 실기교육과 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특강 및 마스터클래스, 향상음악회, 지역사회 재능기부음악회 등 다양한 음악인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에서 후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이사장 이훈규)이 주관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김지현(음악교육과 학과장) 교수는 "조선대캠퍼스는 KB청소년음악대학 1차 연도부터 선정되어 광주, 전남, 전북 등 전라권역의 음악인재교육 거점대학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 교육에 기여하고 있으며, 조선대캠퍼스 수료생들이 음악대학, 예술고등학교의 진학과 각종 콩쿠르 입상 등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선대학교 음악교육과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 음악인재를 양성하여 진로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 강원도 산불피해 성금 기탁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5월 8일 조선대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강원도산불피해 복구지원 성금 5백만 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강원도 일대의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십시일반 모은 것이다.

이성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이번 성금은 다른 지역의 아픔에 공감하고 마음을 전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며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이 잘 전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철 노조위원장은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에게 지역을 넘어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이 전달되어 빠른 복구와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모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대학교 시민르네상스 평생교육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협약 체결

2019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 기관으로 선정



조선대학교 시민르네상스 평생교육원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지난 5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등 보건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간호조무사 특성에 맞는 보수교육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간호조무사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과정의 개발 및 수행에 관한 사항, 기타 호혜적 협력과 상호 간의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철규 열사 30주기 추모학술대회 개최



이철규 열사 30주기 행사위원회는 6월 5일(수) 오후 3시부터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이철규 열사 30주기 추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철규와 함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정치적 의문사로 남아 있는 이철규 열사 사건을 정치학과 근현대사를 전공한 연구자들의 문제의식과 진상규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백수인 이사장의 사회로 △제1 발표 최만원(조선대) '이철규 열사의 사상과 투쟁' △제2 발표 박태균(서울대) '이철규 열사 진상규명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제3발표 윤민재(연세대) '의문사 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 등이 발표되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노영기(조선대), 윤영덕(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최선(조선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종합토론은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균 대표가 진행했다.

이철규 열사는 1982년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을 이끌었고, 1985년에는 '반외세 반독재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가 2년여간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4학년 재학 중 교지 민주조선 창간호(편집위원장: 이철규)를 발간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 중, 1989년 5월 3일 경찰의 검문을 마지막으로 5월 10일 광주 제4수원지에서 처참한 주검으로 떠올랐다.

이철규 열사의 죽음은 국가 기관에 의한 대표적 의문사로서, 열사는 2004년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다.

조선대학교 공영화, 시민들과 함께 논의한다

민주평화연구원, '지방사립대학의 공영화와 과제' 주제로 6월 7일 세미나 개최



민주평화연구원은 6월 7일 오후 2시 서석홀 4층 대호전기홀에서 '지방사립대학의 공영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1946년 지역민들에 의해 설립된 조선대학교를 '어떻게 공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시민들과 함께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최근 일부 사립대학의 비리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전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속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방사립대학의 공영화에 관한 세미나가 열려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귀추가 주목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조선대학교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백수인 조선대 교수가 특강을 실시했다.

이어서 이철갑 조선대 교수의 사회로 세 명이 발표하고 다섯 명이 토론을 하였다.

첫 번째로 김명연 상지대 교수가 '지방사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명연 교수는 저출산,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금이 대학 체제 개편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하면서 정부는 적어도 내년에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체제개편의 시범사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인천대의 공영화 과정과 과제'라는 주제로, 인천대학이 사립대학에서 시립대학을 거쳐 국립법인대학으로 되기까지의 과정과 과제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진근 조선대 연구교수가 ‘조선대학교의 공영화 가능성 진단’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진근 교수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방관한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면서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 전략으로써 공영형 사립대학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조선대학교의 공영화 가능성에 대하여 진단한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은 임종연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조선훈 광주전남 6월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황범

량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전대현 조선대 총학생회 부회장, 김용래 조선대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맡았다.

김재형 원장은 “오랜 역사와 저력을 지니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혼란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영형 사립대학 또는 국공립 형태의 대학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9년 제48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 개최

전국 83개 대학 1천5백여 명 참가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조선대 주관으로 개최한 ‘제48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전국교수테니스대회는 오랜 연륜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4년제 대학 교수들의 스포츠 제전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83개 대학에서 개인전 약 600팀, 단체전 150팀 등 1천5백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7월에 열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다.

대회는 23일(목) 개회식을 시작으로 24일(금)에는 개인전 경기가 25일(토)에는 단체전 경기가 조선대학교 경기장 외 광주광역시 일원 9개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조선대 법과대학 특별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개최

용곡 황금추 장학금, 법대동창회 장학금, 법대교수회 장학금 등 9명에게 전달



법과대학에서는 특별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5월 29일 법과대학6층 교수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장학금은 미래의 법조인 및 공공분야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법대교수회 및 동창회 발전기금, 용곡 황금추 장학기금 등을 기반으로 특별장학생을 선정하여 지급했다. 선발대상은 법학과와 프리로스쿨학과 재학생으로, 각 학과 교수가 성적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학생 가운데 법대학장의 면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했다.

이번 특별장학생으로는 ‘용곡 황금추 장학금’ 3명, ‘법대동창회 특별장학금’ 1명, ‘법대교수회 장학금’ 5명 등 총 9명을 선정했다.

이번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규정에 따라 연 100만 원 또는 학기당 20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법과대학 김종구 학장은 “앞으로도 교수들이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자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재학생 40명,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탐방

조선대 '골드클럽' 프로그램 일환, 한전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2곳 탐방



조선대학교 재학생 40명이 5월 28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행사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조선대가 운영하고 있는 '골드클럽'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탐방에서는 에너지 관련기관 2곳의 시설을 살펴보고, 기관소개, 채용관련 질의응답 등을 실시했다. 재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기 원하는 공공기관이 어떤 곳인지 정확한 정보와 원하는 인재상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 직원이 직접 취업준비를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선대학교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의 무채용이 법제화됨에 따라 재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골드클럽'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우수한 학생들을 미리 선발해 희망기업별로 취업준비반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취업경쟁력

강화와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의 자발적인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스터디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골드클럽의 선발방법은 학과성적(40%), 외국어성적(40%), 자격증(10%), 인턴·봉사활동(10%)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골드클럽에 선발되면 △해당 기업 취업 멘토의 멘토링 지원 △매월 스터디 활동비 지급 △공채대비 취업캠프 참여 △상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멀티미디어형 스터디실 지원 △취업학생처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우선권 부여 △스펙업 지원금 지급 △기타 취업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받는다.

조선대 취업전략팀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한 ‘골드클럽’ 만족도 조사 결과, 참가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올해부터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대 디자인공학과, 국립광주과학관에 과학과 예술융합작품 기증

김병욱 교수의 사운드 스펙트럼(Sound Spectrum)을 비롯
빛·소리 활용 전시품 4점 기증



조선대학교 디자인공학과가 국립광주과학관에 빛과 소리를 활용한 과학과 예술 융합작품 4점을 기증했다.

5월 28일 오전 국립광주과학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과 예술존 작품 기증식'에는 김선아 국립광주과학관장, 조선대 디자인공학과 김병욱 교수, 손장완 교수, 디자인공학과 학생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증한 작품은 ▲소리의 스펙트럼(Sound Spectrum) ▲닷츠 라이트(Dot's Light) ▲이터널 라이트(Eternal Light) ▲빛의 진자(Light Pendulum) 등의

제목으로 빛과 소리를 주제로 한다. 특히 이번 기증은 국립광주과학관 1관 2존인 과학과 예술존 리모델링 조성과 연계하여 의미를 더했다.

기증받은 작품 중 '소리의 스펙트럼'은 소리의 성질을 LED로 재해석하여 소리를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빛의 진자'는 '뉴턴의 요람'을 변형하여 운동과 충돌에 대한 물리적 현상을 빛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등 과학이론을 예술적 표현과 접목한 점이 눈에 띈다.



조선대 외국어대학,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운영협력 협약 체결

재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대학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지역사회에 기여



외국어대학 중국어문화학과는 5월 28일 오전 11시 외국어대학강실에서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행복학교 36.5'와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운영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희무 외국어대학장, 김하림 중국어문화학과장, 이봉문 행복학교36.5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 △지식정보의 교환과 교육 및 인재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교내활동에 관해 상호협조 및 인적물적 지원 △기타 업무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조선대 외국어대학 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외국어교육 등 교육봉사활동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봉문 대표는 "행복학교36.5는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사회의 안정된 정착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단체라고 소개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젊은 친구들이 서로 만나 친교를 나누며 미래 분단 극복과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함께 동행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하림 중국어문화학과장은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민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지역창업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MOU 체결



조선대학교(총장직무대리 홍성금)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센터장 김홍남)는 스포츠산업과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창업기업 육성과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스포츠산업 창업 및 지역 창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는 광주지식재산센터(이화신 센터장),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이승권 교수),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박일서 센터장), 동구 창업지원센터(김정학 센터장), (사)창업지원네트워크(하상용 이사장), 광주연합기술지주(장민 대표), 특허법인 신세기(류신희 이사), 특허법인 지원(심성렬 대표), (주)지혜와 비전(정연수 대표이사), 한국기술투자(정문수 대표이사), (주)축(여수아 대표이사), 비터스드(이유환 대표이사), 선보엔젤파트너스(최영찬 대표), 디자인 맑음(용미현 대표), 디자인 바이(최태옥 대표)등 16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였다.

이들 기관 및 단체는 창업자의 아이디어 계획단계부터 지식재산권의 확보 그리고 시제품의 기술화지원 및 디자인지원,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투자유치 및 지원을 위한 투자사 등의 구성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아닌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는 지역 내 스포츠관련 특화프로그램의 창업지원 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의 지원을 받아 지역 스포츠산업 시장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스포츠 산업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은 물론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역할을 지속해 왔다.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는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초 시행한 ‘지역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선정사업에서 제2권역(충청, 호남권)센터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는 지난 5년간 스포츠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포츠 시장 개

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포츠 ICT 융·복합 기업, 스포츠 관광 및 해양레포츠, 스포츠사회적기업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 기업의 창업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4월 15일 스포츠산업 후속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현재 4개 팀의 후속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6개 팀의 보육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최고 4천

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5년간의 지원사업 기간 동안 특허 및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33건과 창업보육 24팀 창업 100% 달성 그리고 유관 창업보육기관과 협업하여 국가지원사업 17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조선대 대학일자리센터, '2019 해외취업 Cheer up!' 특강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시 해오름관 2층 중형강의실에서 '2019 해외취업 Cheer up!'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해외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해외취업 및 글로벌 기업 취업을 희망하

는 광주전남 지역 청년 80여 명이 참가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이날 △청년고용정책 홍보 △싱가폴, 유럽, 미국의 취업 환경 및 특성과 전략 등에 대한 현직자 특강 △해외취업 전문가들과 참가자 Q&A △해외취업 경험자와 소수 그룹 심층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의과대학 동아리 '브릿지 의료인회(BMA)', 외국인 유학생 무료 진료



의과대학 동아리 브릿지 의료인회(BMA: Bridge Medical Association)는 지난 6월 1일 국제협력팀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무료 진료를 시행했다.

브릿지 의료인회는 전문 의료진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학생들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이번 무료 진료 행사에는 전문 의료진 16명과 치대, 의대, 간호학과 및 자원봉사자 90여 명이 참여했다.

국제협력팀은 교내 유학생들에게 4월부터 해당 내용을 알리고 사전예약을 받아 유학생들이 내과, 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봉사에는 중국, 몽골, 인도 등의 통역 봉사자가 함께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도록 하였고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브릿지 의료인회 정성남 회장은 “국제 유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의료적 필요는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작은 도움이지만 여러 의료진들이 함께 다양한 진료로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이은혁 학생회장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학생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봉사를 기획하였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하여 많은 유학생들이 건강한 유학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조선대, 2019 지역인재 7급 공무원 4명 합격

합격비결은 대학차원의 '전담 준비반'을 통한 효율적 지원 덕분



조선대학교는 2019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조선대는 6월 11일 김예인(경영학부 2019년 졸업), 김은성(경영학부 2019년 졸업), 이종원(경영학부 2019년 졸업), 최성훈(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2018년 졸업) 등 합격자 4명을 초대해 축하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홍성금 총장직무대리를 비롯해 취업학생처 관계자와 학과 지도교수 등이 함께 참석해 정담을 나누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합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합격비결에 대해 조선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준비반'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올해 경영학부를 졸업한 김예인 씨는 "조선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은 타 대학과 비교해서도 최고수준"이라며 "특히 면접학원비 지원으로 부담 없이 학원을 다닐 수 있었고, 정기적인 모의고사를 통해 성적을 체크하고,

교내면접도 일회성이 아닌 피드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준비반을 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을 미리 선발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취업 경쟁력 강화와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준비반에 선발되면 △인터넷강의 △상시 모의고사 △분반별 월간활동비 매월

10만원 지원(교재 구매 등) △합격선배 멘토링 지원 △추천자에 한해 사설모의고사(교외) 및 면접학원 학원비 지원 △재학생 대상 학업보조비(학원비, 생활비 등)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 결과 조선대는 2016년 1명, 2017년 3명, 2018년 3명, 2019년 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조선대는 올해에도 준비반을 모집 운영한다. 준비반은 시니어반과 주니어반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선발방법은 학과성적,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올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120개 대학에서 추천한 510명 가운데 140명이 최종 합격해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시험 합격자들은 내년 상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중앙행정기관 1년 수습근무와 근무성적평가를 거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조선대, 광주지역 8개 고교 대상 ‘찾아가는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추진

대학이 보유한 자원으로 고교생들에게 진로 탐색 및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조선대학교 입학처는 오는 6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광주지역 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고교현장에서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대학이 보유한 자원으로 고교생들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교 중 선정된 △정광고 △동아여고 △빛고을고 △광덕고 △고려고 △동신여고 △조대여고 △설월여고 등 8개 고교 동아리 소속 약 190명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총 4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설된 강좌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분야의 학과 및 전공이다.

대학교수, 보조강사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운영 강사진이 해당 고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사고력과 표현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수업의 방법도 학생중심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교과 간 융합학습, 토론학습 등을 통해 배움 중심 학생 참여형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황병하 조선대 입학처장은 “이번 찾아가는 동아리 지원 사업은 조선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우리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해당 분야별 강의 및 실험을 통한 전공 관련 기초 지식습득과 전문교수와와의 상담을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대 ‘체육예술교육기부 사업단, 찾아가는 교육기부 렉처콘서트 개최

정재규 HP(휴렛팩커드) 휴스턴 디자인 센터 수석 디자이너



조선대학교 ‘전라·제주권 체육예술교육기부사업단(단장 김현우)은 지난 5월 20일 정재규 hp(휴렛 팩커드) 휴스턴 디자인 센터 수석 디자이너와 함께 문정여자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교육기부 렉처콘서트’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교육기부 렉처콘서트’는 글로벌 무대에 진출해 있는 지역의 선배들로부터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토리를 들려주는 과정을 통해 체육·예술에 대한 이해와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

적으로 기획한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 강사로 나선 정재규 디자이너는 조선대학교 디자인공학과 졸업생으로서 현재 hp(휴렛 팩커드) 휴스턴 디자인 센터 수석 디자이너이다.

정재규 디자이너는 문정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미국에서 디자이너로서의 삶과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등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한 준비를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조선대 전라·제주권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단은 2019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체육·예술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부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래사회융합대학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산·학교류회 및 선취업 매칭데이' 개최



미래사회융합대학은 6월 11일 오후 2시 광주신양파크 호텔에서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산·학교류회 및 선취업 매칭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에는 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20개 가족 기업 △디케이산업(주), △금호주택, △무궁/(유)경진 P&D, △토담건설, △성일이노텍, △하이텍산업개발, △순창씨씨, △케이알터빈에너지, △하심청수련교육센터, △하이텍산업개발,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기어폴리(주), △창조산업경영연구소, △서암기계(주), △와이티에스, △좌수영의료법인, △TD솔루션, △디지털테크, △티디글로벌, △한국건설종합개발, △기공시스템 등과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8개교의 3학년 졸업예정 학생들, 취업진로지도교사, 이규봉 휴먼융합서비스학부장, 신주현 신산업융합학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여상, 광주공고, 전남여상, 광주자동차설비공고, 전남공고 등 5개 특성화고교에 '선취업 후학습 진흥장학금' 5백여만 원을 전달하고, 20여 개의 선취업 참여 희망기업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매칭면접이 진행됐다.

이규봉 교수(휴먼융합서비스학부장)는 “지역 내 특성화고와 지역산업체가 함께 하는 ‘선취업, 후학습 진흥위원회’를 구성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선취업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날 행사도 이러한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최근 교육부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학령기 중심대학교육을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조선대학교가 호남권 평생교육거점대학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명사초대석 _ 이민수 조선대 총동창회장



이민수 조선대총동창회장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조선대 경영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해 조선대 총동창회장에 취임했다.

주요 경력

△전남 롤러스케이트연맹 회장 역임 △광주지구JC특우회 지구회장 역임 △대한건설협회 대의원 역임 △전남 인라인스케이트연맹 회장 역임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백악포럼 회장 역임 △2013. 한국JC특우회 중앙회 회장 역임 △現 전남경영자총협회 회장 △現 (주)동양건설 대표이사 △現 남북교류협회 전남회장 △現 BBS 광주불교방송 사장 △現 조선대학교총동창회 회장 (~현재)

Q.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최근에는 사회단체, 체육회, 경제단체 등의 단체장을 맡아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초등부터 대학까지 장학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최대의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계획이다.

Q. 그동안 위기도 많았을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우물 파라'는 말처럼 변하지 않고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초지일관하는 자세로 일을 해왔다. 나름 열심히 살다보니 세월이 흘러 이렇게 넘어왔다.

Q. 가장 어려웠던 시점은?

사회초년생 때 직장 생활을 조금 하다가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다. 사회생활이 녹록지 않았다.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 잡을 무렵 남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인간관계에 대한 환멸도 느꼈다. 나는 선의적인 마음으로 대했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다. 한 번 약속하면 그게 신용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역이용해서 상처를 줬다. 어느 순간 이 사회 전체가 신용과 약속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Q. 직장생활은 얼마나 하셨는지?

3~4년 정도 한 것 같다. 직장생활을 했어도 생활을 자유분방하게 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사업한다고 하면서 회사를 나가니까 나도 따라서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건축자재부터 시작해 사업을 조금씩 키워나갔다.

Q. 사업의 성공 비결이 있다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많은 손실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남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 그래서 늘 떳떳했다. 둘째는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특히 금전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한다. "친구와 돈 거래하지 마라. 필요하다면 그냥 도와줘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거래하지 마라.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Q. 대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는지?

나는 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그때 생각하면 상당히 꿈에 부풀어 있었다. 대학시절 공부에 큰 매력은 없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고 교수님 만나는 게 좋았다. 특히 교수님들과 각별하게 지냈다. 학창시절 공부는 안했지만 조선대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한국JC 중앙회장에 취임했을 때 첫 인사말이 "조선대학교 교가를 칠 년 동안 부르고 이 자리에 왔다."였다.

Q. 대학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학교에 대한 공부보다는 지인들과 이야기하고 운동하는 것이 재밌었다. 그때는 내가 개성이 강해서 아웃사이더였던 것 같다. 그러다 졸업했지만, 지금 다닌다면 좀 더 뜻있는 일을 했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교수님들과의 추억이 오히려 더 많다. 나는 교수님 보려고 학교를 다녔다. 교수님과 편하게 농담을 할 정도로 편하게 지냈다. 내가 나중에 경상대학 대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것도 아주 가까운 교수님이 다니라고 하니까 다니게 되었다. 예전부터 너무 끈끈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거절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Q. 박사학위를 하게 된 계기는?

몸이 아플 때 교수님을 만나 뵈었다. 고등학교 친구들 12명 정도 해서 식사를 하러 갔다. 교수님이 하나하나 대학원 등록해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11명 중 10명 정도가 핑계를 댔다. 몸이 안 좋은 나한테 물어보셨는데, "친구들 다 거절했는데 저까지 거절하면 쓰겠습니다. 저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사학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Q. 만약 다시 대학시절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학교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학과 공부도 그렇고, 동아리 활동이나 연애 등 대학생으로서 즐길 수 있는 낭만과 열정적으로 도전해 보고 싶다.

Q. 총동창회장을 맡고 계신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

우리 조선대학은 위대한 설립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많은 인적, 물적 자산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후배들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직분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특히 교수들도 학생들 진로문제에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총동창회는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후배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요즘 청년들은 취업문제 등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산업체, 공기업 등과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취업을 위한 조선대학교만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또한 장학금을 확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총동창회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

청년들은 보다 넓은 시야로 미래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한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말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 나의 모교를 내가 스스로 무시하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과 믿음을 갖고 5년, 10년 앞의 계획을 세워서 해라. 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높게, 크게 가지고 살아봤으면 한다. 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도전해 보려고 한다.



2019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합격자 대담



2019년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합격자 김예인(경영학부 2019년 졸업), 김은성(경영학부 2019년 졸업), 이종원(경영학부 2019년 졸업), 최성훈(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2018년 졸업)을 만나 합격비결과 소감을 들어보았다.

▲ 대담 진행 : 최혜림(취업전략팀 담당) ▲ 합격자 : 김예인 김은성 이종원 최성훈 ▲ 글 정리 : 전준우 학생기자

최혜림 : 일단 축하드립니다. 합격한 소감은?

김예인 : 합격하게 됐는데도 실감이 안 났는데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실감이 나고. 아무래도 연수원 들어가야지 합격했다는 실감이 날 것 같다.

김은성 : 공직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합격하고 주변 부모님이나 친지 분들이 많이 기뻐하시니까 정말 뿌듯하고 고생한 보람을 느낀다.

이종원 : 실감이 안 나다가 오늘 간담회 하고 나니까 '합격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미국으로 어학연수 갔다 와서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다. 취향 자체가 암기보다 이해하는 시험에 강점이 있었고 그런 점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최성훈 : 나는 연수원 들어가기 전까지 실감이 안날 것 같다. 전공이 건축이다 보니 건설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현장과 법 쪽에 괴리감을 많이 느껴서 내가 현장에서 건설 일 하는 것보다 더 큰일을 하여 현장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였다.



최혜림 :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김예인 : 그동안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을 해봤다. 창업관련 경험, 사기업, 공기업, 공무원 준비까지 했다. 학교도 학점은행제 이수로 편입해서 들어오니까 루트를 다양하게 알아서 똑같

은 고민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을 학점은행제 이수해서 가라고 이야기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경험했던 취업성공 패키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런 정책을 수렴해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소개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고용노동부로 지원하게 됐다.

김은성 : 지역인재 전형을 알게 된 것은 교수님이 학점이 있으니까 추천을 해주셨다. '공기업보다는 공무원이 괜찮지 않겠냐' 추천을 해주셨고, 알아보고 안성맞춤이라 생각해서 지원하였다.

이종원 : 미국 어학연수를 마치고 와서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찾아 오셨었다.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지원을 해줄 수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시스템 자체가 민원이 접수되고 몇 달이 지나야 시스템에 올라갔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것이 너무 한심하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공무원을 꿈꾸다가 지역인재 전형을 알게 되었고, 지원을 했다.

최성훈 : 친구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학점 좋으니까 지원 해봐라" 해서 지원했다. 친구한테 듣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들어서 취업전략팀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



김예인

최혜림 : 나를 시험을 준비하는 노하우들이 있었을텐데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나요?

김예인 : 작년 9월부터 시작했다 9월부터 11월까지 자료해석, 헌법만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상황판단, 언어논리는 독학교재를 사서 혼자 공부했다. 자료해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옆에 있는 김은성 학생과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풀이 방법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했다. 기출문제 2회독할 때까지는 답지를 안보고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것이 맞나 찾아나갔다.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시험 2주 전에 실제 시험과 똑같이 적용해 보면서 멘탈 관리도 했다. 면접은 학원 2개 다니면서 스테디도 했지만 혼자 고민하고 제가 편한 말로 바꾸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다. 면접 때 물어보진 않았지만 유튜브로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고용노동부의 취지가 무엇인지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이 하고 싶었고 공무원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국민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필기를 준비하는 분들이 지원동기를 먼저 확립하면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김은성 : 작년 7월1일부터 시험을 준비했고 9월까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그 이후에는 강의 들었던 것을 2회독했다. 11월까지 기출문제를 뽑아서 4회독했다. 더 배울 게 있거나 틀렸던 문제, 못 풀었던 문제만 남겨서 상대적으로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했다. 면접은 학교에서 학원비를 지원해줘서 서울에서 학원을 다녔다. 학원 커리큘럼을 성실하게 따라간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면접을 준비할 수 있다.

이종원 :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서 어떤 과목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방법을 익혔고 그 후 개인적으로 공부하며 실전에 적용하며 나만의 방식으로 풀었다. 학교에서 매달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며 자신의 위치를 분석하고 확인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교 직원으로 일을 하고 금요일 저녁에 KTX를 타고 서울에 가서 주말 면접학원을 다니고 일요일 오후에 광주에 오는 삶을 2달 정도 살았다.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최성훈 : 다른 학생보다 준비기간이 길었다. 1년 반 정도 했다. 시작 할 때 성적이 좋지 않아서, 남들보다 길게 준비를 했고 기출을 2회독 풀었을 때 '이런 시험이구나' 파악을 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목해서 풀어야겠다'며 나만의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학원 강의를 2번 정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3~4회



최성훈

독할 때 '풀어본 문제를 90점 이상 못 맞으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노력했다. 버릴 건 버리고 강점을 더 갈고 닦아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았다. 인터넷 강의도 자신과 맞는 강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면접은 서울에서 준비했는데 일반 면접과는 상이해서 당황했지만, 학원에서 그런 방식을 잘 알려줬다. 공부는 스테디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1, 2학년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나만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해결을 했다'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많이 준비해두면 면접을 준비할 때 수월할 것이다.

최혜림 :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을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김예인 : 멘탈 관리가 제일 어려웠다. 시험 특성상 기회가 딱 한번 뿐이어서 압박감도 심했다. 시험 자체가 사고력을 기반하는 시험이라서 맨 처음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왔지만 갈수록 정체되었다.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집이 멀어 이동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버스에서 문제 하나를 진득하게 생각해 보려고 했다. 그런 시간을 거쳤기에 시험 당일에 유형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았다. 행복한 순간을 생각하며 몰입하려고 노력했다. 어플을 이용해서 '스터디 헬퍼' 명언을 팝업을 띄워서 그걸 보며 위로를 했고 어플을 보면서 중요한 날에는 기분 가장 좋음을 표시해놓고 기분이 좋다고 자기암시를 해서 극복을 했다.

김은성 : 개인 여건상 학교에서 관리하는 지역인재 준비반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준비했다. 그래서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 힘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김예인 학생과 스터디를 같이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엉덩이를 한 곳에 많이 못 붙이는 스타일인데 3일은 열심히 하고 하루는 쉬며 스트레스 관리를 하였다.

이종원 : 가장 힘든 점은 외로움이 아닐까 싶다. 공부를 하다보면 성과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왔고, 내가 확실히 붙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우울한 시기가 있었다. 특히 지역인재는 한 번 떨어지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이 다른 시험보다 크게 작용해서 더 우울했다. 우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사설 모의고사를 더 자주 봐 자신의 실력을 체크하며,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시험 기간까지도 여유롭게 보내지 않고 타이트하게 보낼 수 있었다.

최성훈 : 유일한 기술직인데 공대생이라 헌법이 어려웠다. 기초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 내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다.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친구들이 취업을 했다는 소리도 많이 들려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갖는 불안감과 나보다 늦게 시작한 학

생들보다도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멘탈 관리가 힘들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 발 늦은 거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면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늘렸다. 하루에 12시간~15시간 정도를 계속 앉아서 공부를 했다.

최혜림 : 시험을 준비하려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김예인 : 시험을 준비하려면 학과성적이 좋아야 해서 학과성적을 잘 받는 사람들의 특성상 모르는 것을 잘 못건뎀한다.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자존심 상하고 알 때까지 탐구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접근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자존심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혼자 공부를 할 때 모르는 것은 쿨하게 인정하고, 안 되는 건 버리고, 가질 수 있으면 가지는 단호한 입장이 면접 때도 도움이 많이 됐다. 당장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하고 멘탈이 흔들릴지언정 잘하는 거라도 가져가는 게 전략상 좋다.

김은성 : 지역인재 전형이 한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이 불안했고, 재수까지 해서 적은 나이가 아니라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도 본인 스스로를 믿고 노력을 많이 하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모의고사 성적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봐도 좋고. 내년에는 합격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종원 : 지역인재가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긴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이 대부분 20대 중반에서 후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부딪혀보고 항상 긍정적으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보다, 내가 붙었을 때 뭘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그 날 조금 더 힘이 생기고 공부를 하는 데도 힘이 생긴다. 암기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도 있고 ‘하면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공부에는 답은 딱 하나라고 생각한다. 노력을 하면 그 공부는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굳건하게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성훈 :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는 학생들은 학과성적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면접 준비를 함에 있어서 지금부터 경험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면접이든지 잘 말할 수 있다. 한 번뿐인 시험이지만 어린 나이에 7급 공무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2022년부터 일반 공채 7급직도 피셋으로 전환된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종원

최혜림 :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최성훈 : 학교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꼴등을 해서 너무 불안했다. 그때 당시 1년 정도 준비했을 때 그런 점수를 받아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었다. 근데 '이왕한 거 끝까지 해보자' 하며 마음을 다잡고 임했다. 낙담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종원 : 시험을 한 달 반 정도 남기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환경이 변하고 주변사람도 없어 외로움이 더 커졌다. 너무 외로워서 점수도 떨어지고, 휴식을 주지도 못하고 하며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극복하려고 동기 부여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고,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도 하고, 이 시험이 아니더라도 할 건 많으며 긍정적으로 힘을 주다보니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원래하던 페이스를 되찾았다.

김은성 : 준비를 하면서는 수월하게 했지만, 시험 전날 서울에 올라가서 숙소를 잡았는데, 밤에 긴장이 되기도 하고 방음이 안 돼서 위층에서 떠드는 소리와 물 내리는 소리가 잘 들려서 3시간 밖에 자지 못했다. 안 그래도 컨디션이 중요한 시험인데 걱정이 많이 됐다. 시험 당일 헌법과 언어논리 시험이 어려운 상태이고 컨디션도 안 좋으니까 잘 봤다는 생각도 안 들고, 실제로 잘 보지도 못했다. 점심 먹으면서 예인 학생과 '나머지 2과목 남았으니까 잘 볼 수 있다.'고 서로 응원해주면서 멘탈을 관리하니까 나머지 두 과목에서 실제로 잘 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김예인 : 모의고사 성적이 생각보다 너무 안나오고 시험 직전에 본 모의고사도 백분율이 80퍼센트 정도라 떨어질 것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성 선배님께서 “계속 이러다가 한 번에 쪽 올라.”라며 격려를 해주시고 스터디 헬퍼라는 프로그램에서 명언이 나



김은성

왔는데 물이 끓기 위해서는 99도에서 1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며 시험장에 갔다. 헌법 시간에 시험지도 떨어져서 옆 반에 뛰어가서 받는 상황이었고, 시험 내용에서도 나는 전문만 공부했는데 부령이 나와서 걱정했고, 언어논리도 과락이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은성선배가 “나머지 두 과목 잘 보면 잘 볼 수 있다”라고 말해주어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었다.

이종원 : 이번 시험이 합격과 불합격 판가름이 미묘했던 것 같다. 헌법과 언어논리가 예년과 다르게 너무 어렵게 나와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비관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왔다. 결국 2, 3교시에서 판가름이 났다. 헌법은 누구나 어려워졌기에 변별력이 부족했고, 자료나 상황판단에서 누가 더 빨리 회복에서 점수를 얻느냐의 싸움이어서, 시험 준비와 똑같다. 어려웠고, 극복해 봤기에 잘 할 수 있었다. 항상 공부를 할 때도 그런 걸 연습을 한다면, 1교시에 잘 못 보더라도 2, 3교시에 열심히 해서 붙은 사람이 되게 많이 때문에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최성훈 :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취업준비반의 스터디를 잘 활용하라는 것이다. ‘다 같이 붙자’라는 마인드로 서로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면 멘탈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좀 더 스터디가 활성화되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

‘청년 TLO 취업 성공사례’ _ 졸업생 정재형 씨



정재형 씨는 지난 2018년 8월에 응용화학소재공학과를 졸업하고
청년TLO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4월 '한국메티슨특수가스(주)'에 취업했다.

‘청년TLO 육성사업’은 이공계 청년이 대학 졸업 이후,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이전 전담인력(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r)으로 근무하면서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Q.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한국메티슨특수가스(주)에 다니고 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가스를 제조 유통하는 회사이다. 나는 'ICP_MS'메탈분석, 즉 가스 안에 금속의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분석을 한다. 가스의 순도가 높아야 하는데 불순물 금속을 찾아내고 기준에 맞는지를 분석하는 일을 한다. 최종 검사단계라고 볼 수 있다.

Q. 직장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요?

적성에 맞는지 생각보다 즐겁게 일하고 있다. 타지생활이지만 회사에서 숙소도 제공해 주고 있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 다만 회사하고 숙소가 떨어져 있는데 교통수단이 불편하다. 운전면허도 없고 해서...

Q. 응용화학소재공학과를 졸업했는데.. 원래 원하는 분야였나요?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 전공이 원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초기에는 적응하지 못해 학과를 옮기거나 학교를 그만 둘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3학년 1학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다. 학과 성적도 좋지 않았고 미래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부모님과도 대화를 많이 했다. 그러다 마음을 고쳐먹고 3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다. 그때부터 주변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다. 그전까지는 꿈이라는게 없었는데 전공 관련된 분야의 분석에 관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기부여가 되었고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준비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도 긴장했던 것 같다.

그동안 나 자신의 나태함에 대해 되돌아 보았고 친구들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3학년 2학기 이후 겨울방학동안 토익사관학교도 참가하고 4학년때는 자격증에 도전했다. 화학분석기사/위험물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 등에 도전했다. 비록 졸업할 때까지는 자격증 취득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시도해본 것이 좋았고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공부했던 지식과 노력들이 축적되어 졸업 후 결국에는 합격도 하고 전반적으로 발전한다는 느낌도 들었다.

Q. 청년TLO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 가장 압박 받는 것이 경제적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학과에서 청년TLO프로그램을 소개해 줬다.

Q. 청년TLO가 도움이 된 점이 있다면?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면접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양을 배울 수 있었다. 청년 TLO과정은 그 자체로도 나의 스펙이 되었고 면접에서도 졸업 후 공백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실제 개인적인 소양을 키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취업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문제들이(경제적) 해결되었고 무엇보다 실제 취업으로 연결이 되었다. 사람의 관점 차이일수도 있는데 TLO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청년TLO에 대해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처음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만약 졸업할 때까지 스펙이라는 것도 없고 꿈도 없고 방향도 없다면 성취감,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활동을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자격증 취득처럼 스펙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행 등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소한 것이라도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야 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를 허비하고 나서 밤에 누워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니 문득 너무 공허하고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뭐라도 도전하고 한번 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실제 부딪혀보면 힘은 들어있어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아라.

Q.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마지막이 아닌,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 해외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시각디자인학과 3학년 조은이 학생, 무역보험 인쇄광고 공모전 대상 수상



시각디자인학과 3학년 조은이 학생이 무역보험 인쇄광고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무역공사는 지난 6월 10일 '무역보험 50주년 기념 제9회 대학(원)생 인쇄광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중소기업 지원, 환율리스크 관리, 신산업 성장지원 등 무역보험 관련 6개 주제로 진

행됐다.

공모전에는 총 268작품이 응모해 12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돼 수상자에게는 115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조은이 학생은 무역보험의 신산업 지원을 우주선으로 표현한 '우주 산업의 빛을 밝히다'로 대상에 선정되어 5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 수상실적

- △ 2017 한국디자인트렌드대전 웹디자인부문 입상
- △ 2018 보해 기념주 브랜드디자인공모전 패키지부문 입상
- △ 2018 sk영크리에이티브 공모전 영상부문 스토리보드 장려상
- △ 2019 한국무역보험공사 공모전 포스터부문 대상

○ 수상소감

여러 공모전에 작품을 내 보았지만 이런 큰 상은 처음 받아봅니다. 이 공모전을 처음 준비했을 때는 1학년이었던 16년도였는데 그때에는 낙선을 했었던 제가 어느덧 3학년이 되어 대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해온 공모전들을 돌아보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겨우 나온 아이디어보다도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들이 더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문득, 딴 생각을 하다가도 문득, 다시 말하자면 머리가 비어있을 때가

아이디어가 제일 잘 떠오를 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히려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한정된 주제 속에서 못 헤어 나오더라고요. 물론 좋은 작품들을 보고 영감을 받는다는 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사실 아이디어가 굉장히 빨리 나온 편입니다. 노트에 마인드맵을 하다가 '신 산업무역의 불을 켜다'라는 카피가 먼저 떠올랐고 이미지를 구상한 뒤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다듬고 완성된 작품을 보니 제 아이디어 그대로 맘에 드는 이미지가 나와서 뿌듯했습니다.

저처럼 공모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한 것처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1학년 때에는 상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해도 금방 일어나서 조연도 받으며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자책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름 마음이 편해진답니다.

조선대학교 2학년 모일환,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3년 연속 우승 및 코리아오픈 200m 우승 코리아 오픈에서 조선대 400m계주도 깜짝 금메달



대한민국 단거리 육상의 기대주 체육대학 2학년 모일환이 제48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400m에서 3년 연속 우승하였다.

모일환 선수는 지난 5월 2일 충북 충주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제48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대학부 400m 결승에서 46초 66을 기록하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 금메달 행진을 대학 2학년까지 이어갔다.

한편, 모일환 선수는 지난 4월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의 400m 경기에서도 46초 17의 기록으로 한국 대학부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모일환은 2019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 남자 200m에서 우승했다.

모일환은 지난 6월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200m 경기에서 21초16의 기록으로 일본의 케이 다카세(21초 30), 대만의 쇼우 포 예(21초 42)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라인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남자 400m계주(4×100mR)에서는 조선대(김중석, 김명하, 서준빈, 한승완)가 41초 48을 기록, 경북도립대(42초15)와 인도대표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현우 부장교수는 “모일환 선수가 아직 대학 2학년으로 전성기의 기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경기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며 “육상부의 팀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고, 학생들이 서로 격려하며 훈련에 참가하고 있어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이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대 생명과학과 대학원생, 국제 해조류 심포지엄 우수포스터상 수상



생명과학과 식물계통분류학 연구실 소속 호세아빌라(Jose Avila-Peltroche) 대학원생(석박사 통합과정, 지도교수: 조태오 교수)이 2019년 '제 23회 국제 해조류 심포지움(23rd International Seaweed Symposium)'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호세아빌라 대학원생은 2019년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학술발표회에서 논문 'Factors affecting survival and cell division during protoplast culture of *Undaria pinnatifida* sporophyte'를 발표해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주요 수산양식종 중의 하나인 미역의 포자엽체로부터 확보된 원형질체들을 세포재생과

정을 통해 다시 완전한 포자엽체로 발달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논문의 주요 결과 내용으로는 원형질체의 재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배양액의 조합과 적합한 배양온도가 확인되었으며, 발달 과정 중의 다양한 형태적 변이들이 인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해조류양식에 있어 기존의 양식방법을 뛰어 넘는 미래해조류 양식 산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으로 미역의 원형질체가 재생 배양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생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어 이번 우수포스터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호세아빌라는 페루 Ricardo Palma University에서 학사 마치고 2015년부터 조선대 생명과학과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해양갈조식물기탁등록보존기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조선대 토목공학과 이태영 학생, 대한공간정보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토목공학과 정명훈 교수 연구실의 이태영 학생(토목공학과 4학년)이 지난 5월 31일 '2019년 대한공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Embarrassingly parallel 데이

터 심도 기반 군집 분석 알고리즘"에 관한 발표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대용량 공간 데이터(예: 택시 이동데이터, SNS 위치정보)의 군집(clustering) 분석 시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1993년 창립된 이후로 공간정보의 핵심 및 표준기술, 유통 및 활용기술, 응용기술, 공간정보기반의 서비스 기술, 공간정보 기술 보급 및 활용 관련 최신 이론 및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술단체이다. 특히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주목받는 여러 영역에서 핵심기술로서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조선대 김현준 대학원생, 한국표면공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치의생명공학과 김현준 대학원생(최한철 교수 연구실: 치과재료학)이 2019년도 한국표면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The K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한국표면공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수행한 '플라즈마 이온 산화를 통해 형성된 Ti-xNb합금의 기공위에 형성된 골(Bone Formation on the Pore Formed

Ti-xNb Alloy by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을 발표하여 포스터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은 Ti-xNb에 PEO(plasma electrolytic oxidation)방법을 통해 소재 표면에 미세한 기공을 형성함과 동시에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를 표면에 도핑하여 표면에서 골형성능을 평가한 연구로 임플란트와 골과의 결합을 촉진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하여 생체 적합성을 개선한 연구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저탄성계수의 합금을 제조하였으며 내식성이 우수하고 골형성능이 우수한 표면처리를 통하여 임상시술 시 치유기간의 단축가능성이 있어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를 보인 연구로 평가되어 수상하였다.

전형별 모집인원

■ 전형별 모집인원

구분	계열	모집단위	세부전공	입학 정원	수시모집																			
					학생부교과						소계	학생부종합						소계	실기		소계	합계		
					정원내				특성 화등 재직 자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일반	국가 보훈	군사 학과	만학 도		일반		지역 인재	소프 트웨 어	농어 촌	장애 인등	기초 생활	실기						특기 자	
글로벌 인문 대학	인문	국어국문학과		60	29					29	10	10		1		2	23			0	49	3	52	
		영어영문학과 *		95	52			2			54	10	10		1		2	23			0	74	3	77
		역사문화학과		50	19						19	10	10		1		2	23			0	39	3	42
		철학과		27	13						13	10			1		2	13			0	23	3	26
	예능	문예창작학과		32				1			1	10					2	12	15		15	26	2	28
		아랍어과		33	21						21	5						5			0	26	0	26
		일본어과		40	32						32	5			2		2	9			0	37	4	41
		중국어문화학과 *		50	37			2			39	5	5		2		3	15			0	49	5	54
	인문	독일어문화학과		24	11						11	5	5					10			0	21	0	21
		러시아어과		32	16						16	5					1	6			0	21	1	22
		스페인어과		33	22					22	5						5			0	27	0	27	
자연 과학 · 공공 보건 안전 대학	자연	수학과		40	13	2				15	10	10					20			0	35	0	35	
		컴퓨터통계학과		39	21	2					23	10			1			11			0	33	1	34
		화학과		50	21						21	10	10		1			21			0	41	1	42
		생명과학과		50	20				1		21	10	10		1		1	22			0	40	3	43
	인문	의생명과학과		45	21				1		22	15			1		1	17			0	36	3	39
		식품영양학과		42	15	2					17	10	5				3	18			0	32	3	35
		경찰행정학과		37	12	2					14	5	10				3	18			0	29	3	32
		상담심리학과		29	17						17	5					2	9			0	22	4	26
	자연	언어치료학과		27	16						16	5			2		1	8			0	21	3	24
		작업치료학과		40	20						20	10			2			12			0	30	2	32
		소방재난관리학과		30	21					21							0			0	21	0	21	
법 사회 대학	인문	법학과 *		110	60	3		3		66	15	15		4	1	6	41			0	96	11	107	
		공공인재법무학과		40	20						20							0			0	20	0	20
		행정복지학부 *	행정학전공(40명) 사회복지학전공(40명)	80	34	3		2			39	15	10		2	4	2	33			0	64	8	72
		정치외교학과		54	38	1					39	5			1	1	1	8			0	44	3	47
		신문방송학과		45	25	1					26	10			2		1	13			0	36	3	39
		군사학과		40			30				30							0			0	30	0	30
경상 대학	인문	경영학부 *		252	141	2		8	9	160	15	35		3		5	58			0	201	17	218	
		경제학과 *		133	66	2		2	4		74	15	25		3		2	45			0	110	9	119
		무역학과 *		90	44	2		2	3		51	15	10		2		2	29			0	73	7	80
공과 대학	자연	토목공학과 *		62	37	1		2	3	43	10			2		2	14			0	50	7	57	
		건축공학과		45	24	1			2		27	10			2		2	14			0	35	6	41
		건축학과(5년제)		36	22	1			1		24	5			1		1	7			0	28	3	31
		기계공학과 *		220	114	1		2	6		123	15	35		4		3	57			0	167	13	180
		스마트이동체 융합시스템공학부		120	60	1			3		64	10	25		4		1	40			0	96	8	104
		생명화학고분자공학과		121	87	1			2		90	10			1		2	13			0	98	5	103
		재료공학과		90	51	1			2		54	10	10		4		1	25			0	72	7	79
		산업공학과		40	28	1			1		30	5						5			0	34	1	35
		전기공학과		80	42	1			4		47	10	10		3		2	25			0	63	9	72
		광기술공학과		50	35	1			2		38	5			2		1	8			0	41	5	46
		환경공학과		60	30	1			1		32	5	10		2		1	18			0	46	4	50
		원자력공학과		41	19	1			1		21	5	10		2		1	18			0	35	4	39
		에너지자원공학과		40	25	1			1		27	5			2			7			0	31	3	34
			융접 • 접합과학공학과		30	17	1			1		19	5					1	6			0	23	2

구분		모집단위	세부전공	입학 정원	수시모집																			
					학생부교과						소계	학생부종합						소계	실기		소계	합계		
					정원내				특성 화등 재직 자	정원내			정원외			실기	특기 자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일반	국가 보훈	군사 학과	만학 도		일반		지역 인재	소프 트웨 어	농어 촌	장애 인등								기초 생활	
IT 융합 대학	자연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100	46	2		4		52	15	15		2		3	35			0	78	9	87	
			지능IoT전공	60	19				19	10	10					20			0	39	0	39		
		컴퓨터공학과		120	64	3		3		70	10	10	12	3	4	2	41			0	99	12	111	
		정보통신 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76	55	2		2		59	5	5		2		1	13			0	67	5	72	
			임베디드보안전공	30	15					15	5						5			0	20	0	20	
사범 대학	인문	국어교육과		35	15					15	5	4					9			0	24	0	24	
		영어교육과		35	15					15	5	4					9			0	24	0	24	
		특수교육과		30	14					14	5				3		8			0	19	3	22	
	자연	수학교육과		27	12					12	5						5			0	17	0	17	
		물리교육과		20	10					10	5						5			0	15	0	15	
		화학교육과		20	10					10	5						5			0	15	0	15	
		생물교육과		20	10					10	5						5			0	15	0	15	
		지구과학교육과		20	10					10	5						5			0	15	0	15	
	예능	음악교육과		30						0							0	24		24	24	0	24	
	인문	교육학과		20	8					8	5						5			0	13	0	13	
의과 대학	자연	의예과		125	42					42		27		2		2	31			0	69	4	73	
		간호학과		80	36					36	10					3	13			0	46	3	49	
치과 대학	자연	치의예과		80	24					24		24		1		1	26			0	48	2	50	
미술 체육 대학	예능	회화학부	서양화전공 / 한국화전공	37						0						1	1	21	4		25	25	1	26
			문화콘텐츠학부	현대조형미디어전공 / 시각문화큐레이터전공 / 가구·도자디자인전공	64	3			1		4							0	43	3		46	49	1
		라이프스타일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 섬유·패션디자인전공	46				1		1				1			1	36			36	36	2	38
		시각디자인학과		32				1		1							0	26			26	26	1	27
		디자인공학과		35				2		2							0	28			28	28	2	30
		만화·애니메이션학과		33						0							0	21			21	21	0	21
		체육학과 *		100			2			2		23		3		2	28		50		50	75	5	80
	체능	스포츠산업학과		30	10					10		14		2			16				0	24	2	26
		태권도학과		40						0				2	4		6	12	12		24	24	6	30
		공연예술무용과		30						0							0	25			25	25	0	25
창의 융합 교양 대학	-	자유전공학부		80	21					21	5	10		2	2	1	20				0	36	5	41
	예능	K-컬처 엔터테인먼트학과		30						0	29						29				0	29	0	29
	인문	글로벌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학과		35	23					23	5					1	6				0	28	1	29
미래 사회 융합 대학	인문	휴먼융합서비스학부 *	지식자산컨설팅전공 / 스마트비즈니스전공 / 문화산업전공	15				13		55	68						0				0	13	55	68
	자연	신산업융합학부 *	ICT응용전공 / 소방·에너지시스템전공 / 뷰티화장품산업전공	5				3		65	68						0				0	3	65	68
총 계				4,324	1,930	43	30	44	62	120	2,229	509	426	12	87	19	78	1,131	251	69	320	3,314	366	3,680

※ * 표시 모집단위는 전일제 수업을 실시함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전형유형			정원 구분	모집 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학생부 교과	일반		정원 내	1,930	• 학생부 100% ※ 의·치의예과, 사범대학(음악교육과 제외): 학생부 75.8% + 면접 24.2%	○ *미술체육대학 제외
	군사학과			30	- 1단계(4배수): 학생부 100% - 2단계: 1단계 성적 18.9% + 체력검정 27% + 면접 54.1% ▶ 인성검사, 신체검사, 신원조치는 합격/불합격만 판정	○
	고 른 기 회	국가보훈 대상자		43	• 학생부 100%	X
		만학도		44		
		특성화고교	정원 외	62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정원 외	120		
	소계			2,229		
실기/ 실적	실기		정원 내	251	• 학생부 33.4% + 실기 66.6% •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학생부 30.1% + 면접 9.6% + 실기 60.3%	X *문예창작학과, 음악교육과 적용
	특기자			69	• 체육학과, 태권도학과(겨루기): 학생부 31.3% + 입상실적 37.5% + 실기 31.2% • 회화학부, 문화컨텐츠학부: 학생부 45.5% + 입상실적 54.5%	X
	소계			320		
학생부 종합	일반		정원 내	509	-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교과활동 60%, 비교과활동 40%) -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X
	소프트웨어			12	- 1단계(2.5배수): 서류평가 100% (교과활동 60%, 비교과활동 40%) - 2단계: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고 른 기 회	지역인재		375	• 서류평가 100% (교과활동 50% + 비교과활동 40% + 전형적합성 10%)	
				51	• 의·치의예과 -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교과활동 50% + 비교과활동 40% + 전형적합성 10%) -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농어촌학생	정원 외	87	• 서류평가 100% (교과활동 50% + 비교과활동 40% + 전형적합성 10%)	X
	장애인등 대상자	19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78			
	소계			1,131		
합계			3,680			

※ 군 위탁생전형은 별도의 모집요강을 참조(조선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

2020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일정

주요사항			일정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9. 6.(금) 09:00 ~ 9. 10.(화) 18:00	•우리 대학 홈페이지 ¹⁾ 접속 후 접수 사이트로 이동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저장하고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져야 원서접수가 완료
서류제출			9. 6.(금) 09:00 ~ 9. 17.(화) 17:00	•전형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제출장소: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1층 입학전형실 •제출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등기, 택배)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방문접수 불가)
1단계 합격자 발표	학생부교과	군사학과전형	9. 25.(수)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11. 11.(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학생부종합 고른기회전형(정원외)은 12. 10.(화)에 최종합격자 발표
		소프트웨어전형		
		지역인재전형 (의·치의예과)		
면접 고사	학생부교과	군사학과전형	10. 14.(월) ~ 10. 16.(수)	•[2단계 평가] 면접고사,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일반전형 (의·치의예과)	12. 7.(토)	•면접고사장 및 시간은 고사일 3일전에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개인별 면접일시는 변경할 수 없음
		일반전형 (사범대학)	11. 19.(화)	
	실기/실적	실기전형 (음악교육과)	11. 22.(금) ~ 11. 24.(일)	•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장 및 시간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개인별 면접일시는 변경할 수 없음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소프트웨어 전형		
	지역인재전형 (의·치의예과)			
실기 고사		실기/실적	실기전형	11. 20.(수)
	특기자전형			
합격자	발표		12. 10.(화)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개별통보하지 않음 •온라인 문서 등록으로 등록확인예치금 없음
	등록		12. 11.(수) ~ 12. 13.(금)	
추가 합격자	발표		12. 14.(토) ~ 12. 19.(목)	
	등록		12. 14.(토) ~ 12. 20.(금)	
합격자 최종 등록금 납부			2020. 2. 5.(수) ~ 2. 7.(금)	•등록금고지서를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

※ 전형일정은 우리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²⁾에 공지

1) 조선대학교 홈페이지 주소: <http://www.chosun.ac.kr>

2) 조선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주소: <http://ibhak.chosun.ac.kr>

원서접수

1 원서접수 유의사항

• 주요 사항

접수기간	2019. 9. 6.(금) 09:00 ~ 9. 10.(화) 18:00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방문접수는 하지 않음)
접수처	우리 대학 홈페이지 및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www.uwayapply.com)

- 전형료 결제완료가 확인되어야 원서접수가 완료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전형 및 모집단위를 변경하거나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란의 「□동의함」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원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추가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는 우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본인이 정정해야 하며, 기재 누락 및 오류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복수지원 허용범위

-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동일 전형유형 내 1개 모집단위만 지원 가능합니다.
- 전형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최대 3개 모집단위까지 지원·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단, 의·치의예과는 제외합니다.



3 복수지원 금지

- 의예과, 치의예과는 모든 전형에서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예)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의예과	치의예과
지원불가 (X)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간호학과	치의예과
지원가능 (O)	

4 서류 제출

- 주요 사항

등기우편, 택배	2019. 9. 17.(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방문제출	2019. 9. 6.(금) ~ 9. 17.(화), 17:00까지 가능
주 소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1층 입학전형실 (Tel. 062-230-6666)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며 제출이 불가합니다.
- 전형별 해당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우편배달사고 등 기타 사유로 서류가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외국고교 출신자는 외국고교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확인서를 해당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하거나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입시부정행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 합니다.
- 선발에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Fax 제출은 불가합니다.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는 주민등록표초본(원본) 1부를 입학전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에 합격하여 최종 등록한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는 고교 졸업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고교졸업일 이후 즉시(2020. 2. 26.까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우리 대학 입학전형실로 제출(직접 또는 우편)해야 합니다.
- 연락처 변경은 원서접수 이후 입학처 홈페이지 '연락처 변경 시스템'을 통해 지원자 본인이 수정해야 합니다.

신설학과 소개

소방재난관리학과

학과개요

- 소방재난관리학과는 화재재난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방·방재 및 복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대형화재와 천재지변과 같은 사회재난을 사전에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국가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

주요 교과내용

-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시스템을 중심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소방·방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소방재난관리학과 교육 커리큘럼은 이 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건축공학 및 행정학의 기초이론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구성
- 특히, 소방청 표준교과목을 중심으로 첨단 소방기술과 재난대응 및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다양한 실험 실습 과목을 통해 실무능력 배양하여 국가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

취업 및 진로

- 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특채: 소방학과 졸업자에게 시험자격 부여)
- 초·중·고등학교: 소방안전교육사
- 연구분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 대기업: 삼성, LG, 현대, 대우 등 대기업의 안전관리분야
- 소방관련회사: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분야
- 유지관리: 학교, 호텔, 병원, 은행, 백화점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신설학과 소개

스마트 이동체 융합시스템공학부

학과개요

스마트 이동체 융합시스템공학부는 4차산업혁명에서 융합과 연결을 촉진시키는 미래 이동수단의 파격적 기술혁신에 대비 미래자동차공학, 항공우주공학, 선박해양공학의 Boundless 학문단위 융복합을 통해 자율형 무인 이동체, 드론형 자동차, 첨단 비행체, 스마트 선박 등과 같은 미래 이동체 신산업에 대응 가능한 국내 최고 수준의 실용학문 기반 실무형 공학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호남권 최초 초소형 인공위성 개발(2018년 1월 발사성공)로부터 입증된 실무공학 기반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접목을 통해 자동차, 항공, 우주, 선박, 해양 등 관련 산업분야 연구개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응용능력을 겸비한 시스템 융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주요 교과내용

1, 2학년 과정에서는 자동차, 항공, 우주, 선박, 해양 등 미래 이동체 분야의 진로에 대한 비전 고취 및 전공기초역량 함양을 위한 기초 교육을 실시한다. 3학년 과정에서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능력 함양을 위하여 전문기술분야별 자기전공전문화트랙을 선택하여 자기 주도형 전공설계가 가능하도록 교육한다. 4학년 과정에서는 학습자 능력과 적성에 따라 산업체 취업을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형 실무공학 전문화트랙과 연구전문인력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학원교육 연계 실용중심형 연구개발전문화트랙을 선택하여 더욱 심화된 맞춤형 전문화 교육이수가 가능하도록 교육한다. 전국 유일의 이동체 학문분야 융복합과 타 학과와 차별화된 실무공학 기반의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졸업생의 취업 선택폭 증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취업 및 진로

지역내 현대차 광주공장 설립과 친환경차 생산 확대, 나로호 발사장을 기점으로 하는 고흥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국내·외 위성 및 발사체 수요 급성장, 저가 항공사 확장에 따른 고급 정비인력 수요확대, 고부가가치 LNG 선박 및 초대형컨테이너선 수주 등 관련 산업분야 전망은 매우 유망하다. 또한, 미래 스마트 자율주행 이동체와 같은 4차산업혁명의 대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문공학지식을 겸비한 첨단 고급정비인력 등과 같은 산업체 전문인력과 고부가가치 미래 이동체 융합 신기술을 선도할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대대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스마트 이동체 융합시스템 공학부는 이와 같은 인력수요에 적극 대처 가능하며, 해당 학문분야간 융복합으로 단일학과에 비해 취업 선택폭 및 취득 가능한 관련 산업 자격증 분야가 대폭 확대된다. 관련 산업체로의 취업을 목표 시, 일반 기계기사, 항공산업기사, 항공정비사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의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국제항공정비사, 조선기사, 용접기사 등 총 40여종의 관련 산업분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대학원과 연계된 심화전공과정을 이수 시, 국책 및 기업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가능하며, 해당교육과정 졸업자는 현재, KAI,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AP위성,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선급(KR), 포스코, Rist, 현대제철 등 관련 산업체 및 연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설학과 소개

K-컬처 엔터테인먼트학과

학과개요

- K-컬처 엔터테인먼트학과는 연기, 공연, 기획, 제작, 연출, 창업 분야에서 21세기 미래 문화산업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한류문화의 글로벌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 K-컬처 엔터테인먼트학과는 공연예술, 영상미디어, 콘텐츠 개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발산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실무교육을 제공할 것이며, 국내 엔터테인먼트회사 및 타 대학 엔터테인먼트 학과들과 MOU를 체결하고 기초교육 → 심화교육 → 전문실무교육 → 인턴과정에 관한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교과내용

- 비교과 창작활동 지원프로그램, 학생 자율설계 연계전공, 멘토링 시스템 운영
- 실기와 현장 중심 실무교육 실시(4학년 2학기 현장 실습 학기제 운영)
- 학생의 학습활동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CU 스타 어워즈' 인증시스템 운영
- 1학년 과정은 인문학 교양과목, 스토리텔링, 사고와 표현, 문학과 예술 과목으로 구성
- 2학년 과정은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어집중교육(ESL) 운영, 프로젝트형 전공 기초교육 실시, 학생 자율설계 연계전공 제도 운영
- 3학년 과정은 실기 중심 교육과정 운영, 학생 자율설계 연계전공 심화과정 운영
- 4학년 과정은 캡스톤디자인(개인 실기연습, 오디션 테크닉 등), 현장실습교육 운영

취업 및 진로

- 공연예술 분야
 - 연기자, 가수, 방송인, 아나운서, 리포터, 무대예술 전문가, 패션디자인 전문가, 공연예술 마케팅 전문가 등
 - 연극, 영화, 드라마, TV 방송국, 패션디자인, 공연예술 분야에서 21세기 엔터테인먼트사업과 글로벌 한류문화를 창조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 인력 양성
- 영상미디어 분야
 - 방송 PD, 광고제작 PD, 언론사 및 방송국 기자, 콘텐츠 기획자, 전시 기획자, 무대 영상 및 음향 전문가 등
 - 영화, 비디오, TV 등 영상매체의 연출, 촬영, 편집, 음향, 조명, 디자인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전문 인력 양성
- 문화콘텐츠 분야
 -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교육사, 박물관과 미술관 학예사(큐레이터), 스토리텔링 작가, 시나리오 작가, 사서, 문화재보존가, 언론인 등
 - 신문사, 잡지사, 언론사, 출판사, 영화배급사, 연예기획사, 드라마 외주기획사, 광고대행사, 지자체 및 정부기관 문화관련 부서에서 창의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전문 인력 양성
- 우리나라 대표 엔터테인먼트회사(SM, JYP, YG, BigHit, FNC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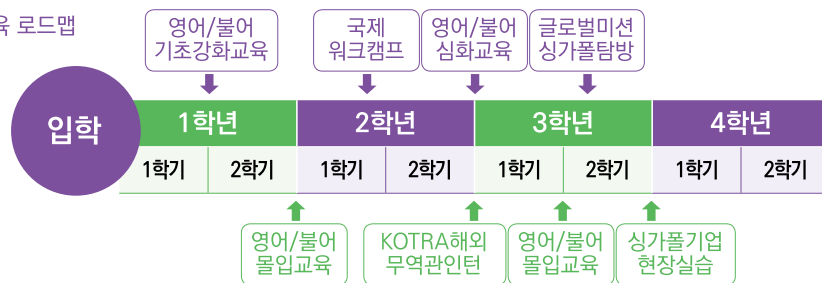
신설학과 소개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개요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GBC)학과는 “해외취업중점학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다. 졸업 마지막 학기에 해외에서 채용형 인턴(싱가포르 기업 중심)을 할 수 있도록 학과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취업 실무역량을 갖추도록 학년별로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GBC학과 해외취업 특성화교육 로드맵



주요 교과내용

- 영어 & 프랑스어: 글로벌 시대에 필수언어인 영어와 제 2외국어로 영어와 함께 세계 공식외교언어인 프랑스어를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다. 영어 및 프랑스어 원어민 화하는 물론 기초/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글로벌비즈니스: 비즈니스 실무이외에 경상대학과 연계하여 <글로벌비즈니스연계전공>트랙을 운영하여 무역, 유통, 마케팅 등의 심화된 경영 마케팅 수업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 글로벌 프로그램: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해외취업 실무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 국제워크캠프 (2학년): 유럽에서 매년 여름 개최되는 해외봉사프로그램 (3주간)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청년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익히고 해외생활을 체험하는 기회.
- 글로벌미션 싱가포르 사전탐방 / 현장실습 (3학년): 1주일간 싱가포르를 탐방하면서 취업 및 비즈니스 교육 이수(하계방학). 싱가포르에서 한 달간 현장실습 체험(동계방학).
- KOTRA 해외무역관 현장실습 (3, 4학년): KOTRA 해외무역관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수출실무를 익히고, 해외주재생활을 체험해 보는 소중한 기회.
- 파리13대학 교환학생 (3, 4학년): 1년간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프랑스어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 싱가포르기업 (채용형) 인턴십 (4학년 2학기): 싱가포르 기업에서 6개월 인턴 근무 후에 정규직원으로 취업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취업 및 진로

- 싱가포르 기업 인턴십을 통한 다국적 기업(싱가포르에 7천개 이상의 다국적기업 공존, 실업률 2%내외, 매년 5~6만명 노동력 부족)
- KOTRA, KOICA 등의 정부지원 기관, 월드비전 등의 국제구호 NGO, UNESCO등의 국제기구
- 유럽을 비롯해서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대륙 (대륙의 50%의 국가들에서 프랑스어 사용)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기업
- 한-EU FTA 체결로 무역회사 및 코스메틱 관련 기업
- 국내 및 국외 항공사와 호텔
- 프랑스 유학(조향사, 디자인, 미술사 등)

신설학과 소개

공공인재법무학과

학과개요

공공인재법무학과는 우리 사회의 공직 및 법조인 진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진로맞춤형 법학교육시스템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리더가 될 공공인재와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공공인재법무학과는 체계적인 정통 법학교육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후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인재를 길러냅니다. 또한 경찰직, 검찰직, 법원직, 교정직, 보호관찰직, 일반행정직을 비롯하여 경찰간부, 5급, 7급 공무원 등 공직 진출에 최적화된 학과입니다. 각종 공기업 진출을 목표로 하는 인재양성은 물론 원어민 영어강좌를 특성화한 글로벌화로 국제적으로 활약할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학과 목표와 특성

-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체계적인 법학교육으로 법조인 진출
- 경찰직, 검찰직, 법원직, 교정직, 보호관찰직, 일반행정직, 경찰간부, 5급, 7급 공무원 등 다양한 공직 진출
- 각종 공기업 및 기업체에 법률전문가로 진출
- 각 진로 분야별 최적의 커리큘럼을 갖추고 학생 1:1 맞춤식 교육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밀착 지도
- 동문 법조인과 공직 합격자의 1:1 멘토·멘티 지도프로그램
- 교수 및 동문의 발전기금으로 3억여 원의 '법학·공공인재양성 장학금'이 조성되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공무원시험과 로스쿨시험 준비를 위한 고시기숙사(황금추관)와 고시실(백우선, 대승원) 완비

취업 및 진로

로스쿨 트랙	공직인재(경찰/공직) 트랙	기업법무/국제법무 트랙
• 체계적인 법학교육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진출 • 각종 기업체, 공공기관 및 로펌에 법조인으로 취업	• 경찰직, 경찰간부직, 검찰직, 법원직, 교정직, 보호관찰직, 행정직, 5급, 7급 공무원 등 공공인재로서 다양한 공직 진출	• 각종 기업체 및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다수 공기업에 법학전공자로 진출 • 미국 교류대학 로스쿨 협동과정 수료 후 미국 변호사자격 취득하여 국제기구·기업체 진출

인터넷 익명성 이대로 안전한가



조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학년 박인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인터넷의 사용은 사람들의 일상생활화가 되었다.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정보교환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 속의 수많은 정보는 불필요한 정보가 넘쳐나고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의 영향력이 건잡을 수 없이 커져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신뢰성 없는 글이 빠르게 실시간으로 퍼져나간다. 이로 인해, 죄 없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가짜뉴스와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익명성을 무기 삼아 악용하는 사례가 무수히 넘쳐나고 있다. 사이버 세상에서 자신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에 대해 욕설, 인신 공격 등을 가한다. 이에 대해 인터넷상에서의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학생의 필수 앱이라고 불리는 ‘에브리타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유명한 앱인 만큼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익명으로 글과 댓글을 작성한다. 익명으로 작성할 수 있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글에 학생들은 정보를 얻게 되고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한다.

한 가지 예로, 대학교에 입학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는 신입생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학생들이 있다. “학교 홍보대사는 무슨 일을 하고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 있었다. 그 글의 댓글엔 “x”, “군기 엄청 세고 하는 것도 없다던데” 이러한 댓글들이 익명으로 달렸다.

또, “홍보대사 군기 잡나요?”라는 질문의 댓글에는 “홍보대사=졸업과 동시에 치킨집 취업”, “군기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홍보대사 해봐야 시간만 버려요” 이러한 댓글이 달렸다.

현재 홍보대사 활동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댓글이었다. 댓글로 인해 생긴 허위사실은 소문이 되고,

퍼지게 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게 된다. 홍보대사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건 홍보대사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부정확한 댓글로 인해 그동안 애써 쌓아온 이미지를 홍보대사들은 한순간에 잃게 되고, 그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홍보대사는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일부일 뿐, 더 큰 네트워크상에서는 흔히 말하는 ‘마녀사냥’이 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음을 이용해 무분별한 비난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특정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지난 몇 년간 있었던 국가적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들이 무분별하게 퍼져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댓글 조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기사는 업로드 후에 추천을 많이 받은 ‘베스트 댓글’이 보이게 되는데 이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주도하게 된다. 베스트 댓글과 다른 의견은 비추천으로 인해 묻히게 되고, 댓글 조작에 의해 여론이 형성되어 버린다. 댓글 조작에 의한 선동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자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된다. 심한 경우,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다.

이러한 피해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줌과 동시에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소통이 생겨난다. 하지만, 익명성이라는 이유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가볍게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러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현재 네트워크상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인 척 여론을 조작할 수 있어 유언비어가 빠르게 퍼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명제를 도입하면 표현의 자유를 잃는다고 하지만 익명으로 말을 해야만 자유고, 실명을 달고 말을 하면 자유가 아니게 되는 걸까? 실명제를 도입하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실명제가 도입되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항쟁의 계절'을 보내며

-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조선대학교

윤영덕 (정치외교학과 88학번, 前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5·18민중항쟁으로 불타올랐던 1980년으로부터 39년이 시간이 흘렀다. 저항과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를 유감 없이 보여줬던 ‘오월’을 이어 도도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재현했던 1987년 ‘6월 민주항쟁’도 어느덧 32년을 넘겼다. 일상을 살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7만 2천여 호남 민중의 ‘끓는 땀을 부어서 일일이 다진’ 조선대학교의 구성원들도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역사의 주체에게 주어진 마땅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항쟁의 역사로 빼곡히 채워진 사월과 오월, 그리고 유월을 보내면서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우리 앞에 놓인 미완의 과제들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도 변함없는 역할을 해 갔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역사적 ‘사건’들이 기억의 한편에 자리하는 과거의 사실에 머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

재, 그리고 미래의 시·공간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으면 한다.

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1·8항쟁’이 1987년 5월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다. 당시 우리 사회는 1980년 5월 광주희생을 딛고 등장한 신군부정권의 폭압적 통치가 극한에 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1987년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을 경악케 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정점에 달했으며,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거센 저항의 물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후 전국의 거리를 뜨겁게 달군 ‘6월 민주항쟁’은 조선대학교의 ‘1·8항쟁’에 커다란 자극과 자신감을 주었으며, 학원민주화투쟁의 과정에서 성장한 조선대학교 운동역량은 ‘6월 민주항쟁’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한편으로는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고 또 한편으로는 ‘박철웅이 처단하여 도민대학 환원하자’를 외쳤다.

[필자 소개]

윤영덕은 1988년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1991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과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수배 중이던 1992년에 학부를 졸업하고 수배문제가 해결된 이후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1997년 정치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중국으로 유학해 북경대학에서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5년 귀국했다. 귀국 이후 한신대 학술연구교수와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객원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광주지역 시민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참여자치 21 지방자치위원장, 광주YMCA 이사,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지역공공정책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조기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에서 지역공약 개발을 담당했으며,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되어 2년여간 일한 후 현재는 지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6월 민주항쟁’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조직적이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 배경에는 1980년 ‘광주항쟁’의 도시가 갖는 특유의 반독재 시민의식과 광주·전남지역 민주화운동세력의 효과적인 결집과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전남지역의 ‘6월 민주항쟁’은 다른 지역보다도 시민들의 광범한 호응과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학원민주화투쟁의 과정에서 단련된 역량을 기반으로 ‘6월 민주항쟁’이라는 대장정에 조직적으로 함께했음은 물론이다.

또한 총건준위를 출범시킨 학생들은 대학생들의 지역 연대조직인 전남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남대협)에 가입하였고, 전국 대학생들의 연대조직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도 가입해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행동의 조직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녹두대’로 상징되는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고,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은 ‘1·8 항쟁’으로 상징되는 학원민주화투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투쟁이 전국 대학의 학원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일약 모범으로 떠올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특히, 조선대학교와 유사하게 대학의 사유화와 사학축별의 전횡, 각종 부정비리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몇 개 사립대학에서는 ‘1·8항쟁’과 ‘1·8항쟁’ 이후 대학개혁의 사례들을 공부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1·8항쟁’이 보여 준 강고한 투쟁과 민주총장 선임으로 이어진 성과와 이후 대학개혁의 진전 등에 따른 것이었다.

이처럼 ‘항쟁의 계절’에 소환된 역사적 사건들은 조선대학교가 걸어온 발걸음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2019년 6월의 보내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조선대학교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 이유다. 역사는 한 사회의 면면을 현상하는 거울이자 다른 사회와 소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창이면서, 동시에 우리들 각자의 삶을 드러내고 내일을 조망하는 근거이다. 어쩌면, 역사적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의 외형적 성과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주체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생활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항쟁의 계절’을 경과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조선대학교의 현 주소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우리들 각자의 역할을 진지하게 모색해 보았으면 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의 설립정신을 잊지 않고, 위기에 빠진 대학을 구하고자 학내 구성원 모두가 단결해서 승리해냈던 ‘1·8항쟁 정신’과 ‘대자협 정신’의 참뜻을 살려, 창학 100년을 준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으로!!!’



에너지자원공학과 학부생 최윤희,

제6회 전국대학생 IEL 퀴즈 콘테스트 우수상 수상

에너지공학과 4학년 최윤희(광물처리실험실) 학생이 지난 5월 14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거행된 '전국대학생 IEL & E4E 퀴즈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IEL & E4E 퀴즈 콘테스트'는 대표적인 공학기술 DB인 IEEE를 대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국 70여 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퀴즈 콘테스트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해외 전자저널 IEEE로 접속 후 검색하여 문제를 풀고 저장하는 온라인 정보검색대회 형식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 참가자는 전국 대학 중 조선대 학생이 가장 많았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IEEE 퀴즈 콘테스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과 AI(인공지능) 관련 산업정책들과의 관련성 때문이다. 관련 산업분야에서 IEEE가 가장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4차 산업 IT를 이끌어가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할 때 IEEE 자료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

이제만 조선대 중앙도서관장은 "IEEE 퀴즈대회에서 조선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했다는 사실은 미래 산업 분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관련 인재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앙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자저널/DB 이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전자정보활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 LINC+사업단, 스마트시티 및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성황리에 마무리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도시경쟁력 강화 기여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난 6월 3일 경상대학 이주현관에서 진행한 '광주지역 스마트시티 및 도시재생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공모전은 도시재생 지역상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공모전 대상지역은 국가차원의 뉴딜사업 선정지인 중흥동, 동명동, 농성동, 사직동 대표 4개 지역이다.

공모전에는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재학생 29개 팀이 참가하여, 광주천 살리기 및 거리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15개 팀이 수상을 했다. 대상은 KTX 진입으로 유명도시로 변모한 광주역 주변의 잠들어 있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코스 및 숙박조성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빛의 도시에 걸맞은 지역 광산업 발전과 4차 산업혁명 변

화에 따른 ICT적 요소가 가미된 광주천 살리기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조선대 정진철 교수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학생들의 도시재생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자리였으며,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들이 앞으로 광주지역 발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는 지난해 KT&G와 함께하는 광주지역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가정의 달 코딩로봇체험’ 운영



‘남구청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코딩교실’ 운영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 고흥우주항공축제 체험 부스 운영



‘스마트 실버세대, 우리도 로봇과 코딩하며 놀아보자’



지역아동센터 대상 ‘2019 찾아가는 SW로봇코딩교실’ 운영



2019년 고교-대학연계 전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조선대 SW융합교육원, '2019 광주 SW체험축전' 체험부스 운영



조선대 SW융합교육원, '2019 찾아가는 초등학교 코딩교실' 진행



조선대 SW융합교육원, 2019 나주금천중 드론올림픽 진행



'침단고 SW중심대학탐방' 프로그램 운영

2019 고교 대학 연계 진로진학 체험 '꿈꾸는 공작소' 진행

조선대학교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단 몽골 간호 연구 활성화를 위한 통계 프로그램 활용 워크숍 개최



조선대학교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4일까지 몽골 현지에서 몽골 간호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SPSS 프로그램 활용 통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7년부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진행 중인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 사업 중 하나인 ‘몽골 간호학과 교육역량 강화와 말기 암환자 가족 돌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간호연구를 위한 통계분석(Statistical Analysis for Nursing Research)’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몽골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들을 초청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승진 부연구위원과 서울성모병원 김경주 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워크숍에 참석했던 몽골민족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인 ‘엔흐테이방 스텍-에르덴(Enkhtaivan Suvderdene)’ 교수는 “이번 워크숍 참여를 통하여 자료 분석의 기초를 이해하였고, 향후 간호연구 수행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분석 방법을 익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은 국내 대학의 자원 및 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 대학 내 필요한 학과 구축 및 교육과정 개선,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대학의 시스템, 자원과 경험 등을 개도국 대학에 전수하여 개도국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형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업단은 오는 7월에는 학생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보건의로 캠프를, 8월에는 협력대학인 몽골민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및 학생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 지역창업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지역창업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우수한 기술창업자 발굴을 위한 지역창업지원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2019년 연계지원 사업설명회를 통한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개최했다.

지역 내 창업지원기관, (예비)창업자, 창업동아리 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사업소개 및 연계지원 멘토링 △성공사례 발표(부각마을 노지현 대표, IOLED 신동찬 교수) △1:1 심층 멘토링 △글로벌 역량 강화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귀하의 목소리는 안녕하십니까?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준희 교수

사람의 목소리는 외모와 함께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이미지 중의 하나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쉰 목소리나 갑작스러운 목소리 변화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감기 후에 생기는 목소리 변화나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과하게 고음을 내서 생기는 쉰 목소리는 성대 점막의 일시적인 부종으로 인해 생기며 대개의 경우 목소리 안정만 취하면 자연히 회복됩니다.

연예 뉴스에서 간간히 접하는 가수들의 성대 결절이나 성대 폴립같은 목소리 질환은 그 이름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쉰 목소리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진단하고 잘못된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또한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 중에서는 쉰 목소리가 생기면 후두암이 걱정되어 당황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목소리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은 너무도 많아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진단에 따른 다양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개의 경우 건강하며 평상시 목소리 이상이 없던 사람이 1주일에서 2주일 이상 쉰 목소리가 지속된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목소리 이상을 진단하기 위해 기본 검사로서 목이나 코로 후두 내시경을 삽입하여 성대의 상태와 성대 점막의 진동을 보게 됩니다. 전문가라면 후두암의

경우에도 이런 후두 내시경 검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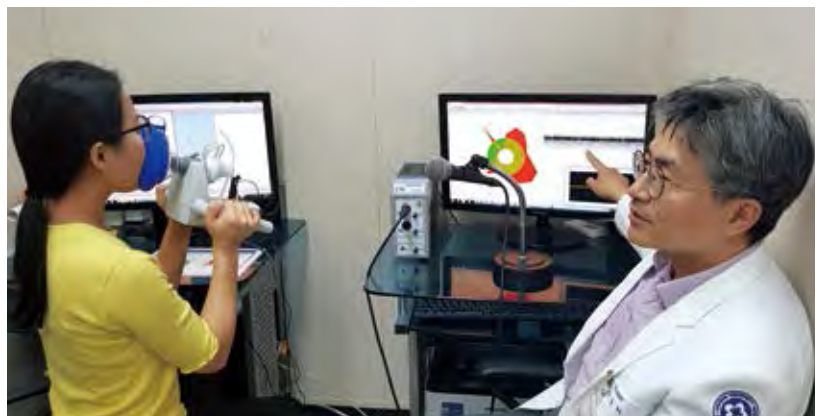
보통 사람의 성대는 일상 회화 중 1초에 100~300번의 진동을 하며 노래를 하는 경우는 1,000번 이상도 진동하게 되므로 우리의 육안으로는 성대의 자세한 진동상태를 관찰할 수가 없어 후두스트로보스코피라는 특수한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계는 미세한 초기 성대결절의 조기진단, 성대마비의 진단 및 회복의 파악, 음성 치료 전후 성대기능의 평가, 후두암의 조기진단 및 치료 후 추적 관찰, 성악가, 가수, 교사, 상담원 그리고 아나운서 등 음성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음성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후두스트로보스코피의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충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소리 이상을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음향검사가 있습니다. 음향검사란 마이크에 대고 환자의 음성을 녹음한

다음, 녹음된 음성을 컴퓨터로 분석하는 검사법입니다. 총 33가지의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음성질환자의 음성 특징에 관한 분석뿐 아니라, 음성직업인의 음성관리에도 효율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되며, 수술이나 음성치료 전과 후의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검사로 사용됩니다.

다양한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목소리 변화나 쉰 목소리의 원인을 찾아내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음성 치료, 후두 미세수술, 보톡스나 스테로이드를 성대에 주사하는 등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시행합니다.

언어 재활 치료사(speech-language pathologist)가 있는 병원의 전문클리닉에서 시행하는 음성치료는 후두 미세수술과 더불어 목소리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교사, 강사, 합창단원, 성악가, 가수, 성우, 성직자, 정치인, 상담원 등과 같이 전문



검사 모습

적으로 음성을 사용하는 직업군의 경우에는 좋은 목소리가 나올 때 음성장해를 전문으로 다루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언어 재활 치료사와 정기적으로 목 상태를 관리하면 최상의 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 목소리의 대표적인 수술적 치료인 후두미세수술은 성대에 발생한 병변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수술 현미경을 이용하여 성대를 약 8~40배 정도 확대한 상태로 관찰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미세수술이라 불리게 됩니

다. 원 목소리 질환뿐 아니라 초기 후두암의 경우에도 레이저를 이용한 후두 미세수술로 목소리를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싶다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당연히 큰소리로 말하거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속삭이는 말투는 성대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에 꼭 피해야 합니다. 또한 목이 불편하거나 목소리가 변했을 경우에는 헛기침을 일부

로 한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은 성대의 과도한 충격을 유발하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상 시 충분한 수분 공급을 위하여 하루 8잔 이상의 물 섭취는 목소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탄산, 유제품 음료는 목안의 점도를 높이거나 건조하게 만들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질환과 마찬가지로 목소리 질환도 발병 후의 치료보다는 평상시에 잘 관리하여 건강한 음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선대병원과 상호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러시아 부리아트 공화국' 보건국 임직원 방문



러시아 부리아트 공화국 보건부 임직원과 의료진은 광주광역시와 조선대병원과의 의료관광 및 의료사업 활성화 기틀 마련을 위해 조선대병원을 방문하였다.

지난 2016년 부리아트 공화국을 방문하여 의사협회, 의과대학 및 병원과 MOU를 체결한 조선대병원은 이듬해 2017년 부리아트 보건부 임원 및 병원장단이 광주광역시와 조선대병원을 방문하여 상호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광주광역시 및 조선대병원은 부리아트 공화국과 그동안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의료관광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의료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료 상품 개발과 인적 네트워크 확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날 조선대병원 1관 인공지능암센터, 2관 정형외과, 외과, 응급의료센터 등 다양한 진료 공간을 둘러보며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을 확인한 부리아트 방문단은 향후 조선대병원 및 광주광역시와의 의료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더욱이 부리아트 공화국의 의료진은 한국에서의 의료 연수를 희망하고 있어 조선대병원은 부리아트 의료진에게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조선대병원의 글로벌 이미지 향상과 함께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장미축제를 찾은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프로그램 진행



전국적인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조선대학교 장미원에서 펼쳐진 '제17회 장

미축제'가 5월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2일간 개최되었다.

특히, 축제 하루 전날인 10일(금) 조선대학교 시민르네상스평생교육원(서석홀) 105강의실에서는 '대학과 지역의 따뜻한 동행'이란 주제로 지역 독거 어르신을 초청해 장미원 관람과 건강 검진 등을 실시했다.

이에 조선대병원은 참석한 어르신 70여 명을 대상으로 혈당과 혈압을 체크하고 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등 평소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이날 건강 상담을 받은 한 어르신은 "조선대학교 장미축제 기간에 조선대병원에서 직접 혈압과 혈당을 재주고, 잊고 지냈던 식습관과 운동 등 다양한 건강관련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평년보다 빨라진 개화 시기와 5.18 추모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겨 개최된 이번 장미축제는 '오롯이 장미'라는 주제로 음악다방, 단오부채만들기, 민속놀이체험, 플라로이드 사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축제기간 동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최근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위암·유방암' 평가, 조선대병원 '1등급' 획득

특히, 2018년 평가에서 '위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 모두 광주지역 1등급 달성한 조선대병원...
지역 건강 수호에 앞장서

조선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위암·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았다.

암 질환은 국내 사망률 1위의 질병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27%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1월~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방사선치

료 시기 등 유방암 11개 지표와 위암 13개 지표를 각각 선정하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심사평가원은 광주지역 생활권에서도 최상의 암 진료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또한 2018년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주요 4대 암(위, 유방, 대장, 폐) 평가에서 조선대병원은 광주지역에서 유일하게 모두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지역민의 건강 수호에 앞장서 오고 있다.

이는 조선대병원이 2014년부터 암 분야 전문의로 구성된 10개 '다학제 통

합 진료팀' 운영과 함께 2017년 호남지역 최초로 선보인 미국 IBM사의 '왓슨 포 온콜로지' 도입 등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암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요 4대 암 평가에서 1등급 획득이 가능했다.

배학연 조선대병원장은 "광주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조선대병원은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암 진료에 대한 의료진 및 시스템 강화를 통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연속해서 '1등급' 달성

특히, 심평원이 실시한 지난 '암 적정성 평가' 역시 2016년부터 계속해서 1등급 달성...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 인정

조선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에서 실시한 '제8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항생제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적정 항생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심평원이 실시해온 2019년 평가는 19개 수술별 ▲ 항생제 투여시간 ▲ 항생제 선택 ▲ 투여 기간 ▲ 환

자 관리 등 지표를 선정해 평가가 실시되었다.

조선대병원은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 사용이 권고되는 위, 대장, 유방, 척추수술 등 19개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종합 '1등급'을 달성하였다.

특히, 조선대병원은 심평원이 실시

한 '암 적정성' 평가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위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 부문 모두 1등급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역시 위암과 유방암 모두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심평원이 실시하는 주요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광주 및 전남·북 지역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조선대병원 방문**



조선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5월16일 오후 4시, 지역 내 약물 이상반응 감시활동 및 피해 구제제도 관련하여 실제 의료 현장과의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광주 및 전남·북 지역 약물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조선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이번 방문은 약물 이상반응 감시 활동을 통해 약물 부작용 신고 체계를 활성화하고 부작용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등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순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약품 안전관리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으며, 배학연 조선대병원장 역시 지역 내 약물 이상반응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광주 지역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극적인 의약품 이상 사례 수집 및 보고를 위해 활발한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한 조선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광주 및 전남·북 지역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앞장서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선대병원, 조선의대 출신
김현성 원장으로부터 자동심장
제세동기(AED) 기증 받아**



20일(월) 조선대병원은 급성 심정지로 인한 환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김현성 원장(조선의대 졸업, 現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나누리강남병원장)으로부터 '자동심장제세동기(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AED)' 2대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연 3만 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4~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사용하는 자동심장제세동기(AED)는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정상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기로, 현재 조선대병원 1관~3관 주요 각 층과 이동경로에 총 14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날 기증식은 김현성 나누리강남병원장과 배학연 조선대병원장 및 주요 부서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기증 받은 2대는 순환기내과에 설치하여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심정지 상황에 신속하게 이용될 예정이다.

배학연 조선대병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의술을 펼치고 있는 조선의대 출신 개원의들이 모교 병원의 발전과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의료기기를 기증해주고 있어 매우 감사하다."며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추가로 확보한 만

큼 골든타임을 지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활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준형, '2019 유럽소화기내시경
학회(ESGE)' 구연 발표**



조선대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준형은 5월 4일부터 6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2019 유럽소화기내시경학회(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ESGE)'에 참가해 구연발표를 했다.

세계내시경학회,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와 함께 내시경 분야를 이끌고 있는 유럽소화기내시경학회는 유럽 전역과 미국,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3일간에 걸쳐 약 3,500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최신의 치료 기법 소개와 함께 다양한 강연이 이뤄졌다.

이준형 전문의는 '위 선종 또는 조기 위암과 대장 직장 선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Gastric adenoma or early gastric cancer is an important risk factor for colorectal adenoma)'에 대해 발표해 이날 모인 소화기 내시경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주목받았다.

한편, 이날 참석한 조선대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향후에도 다양한 국내외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최신 의료기법을 접목한 소화기 내시경 치료를 지역민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선대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
세계 금연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수상**



조선대병원의 광주금연지원센터(센터장 임동훈·사진 가운데)가 '제32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세계 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87년 담배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5월 31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광주금연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금연 유관기관 및 다양한 조직을 기반으로 금연사업추진단(정책자문단·실무운영위원·분과협의체)을 구성해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정책방향, 지역사회 자원연계, 네트워크 활성화로 흡연을 감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동훈 광주금연지원센터장(조선대병원 비뇨기과 교수)은 “앞으로도 담배 없는 건강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금연 지원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
완도군 노화읍 지역 '낙도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실시**



조선대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센터장 송한수)는 지난 24일 전남 완도군 노화읍 넓도 어업인을 위한 '낙도지역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했다.

낙도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함께한 이번 의료서비스는 혈압과 혈당검사는 물론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관리법을 이날 모인 4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넓도 보건진료소 한의사의 침술 진료와 함께 물리치료사의 근육과 관절에 대한 도수치료 및 탄력밴드를 이용한 근·골격계 질환예방 운동 프로그램 등을 함께 실시하며 만족감도 높였다.

송한수 어업안전보건센터장(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향후에도 어업인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실시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업안전보건센터로 지정된 조선대병원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무릎 질환 및 심혈관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조선의대 출신
선정우 원장으로부터
피부과 의료장비 기증 받아**



조선대병원은 선정우 원장(조선의대 24회 졸업, 現 광주 광산구 소재 하안피부과 원장)으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피부과 의료장비인 '셀렉 V(cellec V)'를 기증받았다.

여러 파장의 광선으로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셀렉 V'는 9개의 교체형 필터를 이용하여 단일 파장이 아닌 다양한 파장으

로 각각의 질환에 적용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선정우 원장은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조선대병원이 최상의 치료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며 모교의 발전을 기원했고, 배학연 병원장 역시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조선의대 출신 개원의들의 잇따른 의료장비 기증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조선대병원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운동재활강사 양성과정'
성황리에 성료**



조선대병원 농업안전보건센터(센터장 송한수)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조선대병원 하종현홀에서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및 관련 학부생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운동재활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농업인 운동재활전문가 과정은 전남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선대병원 교수진으로 이뤄진 이번 과정은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의 농·작업 환경과 직업성 질환 ▲재활의학과 김권영 교수의 농업인 운동 재활 ▲정형외과 김동휘 교수의 근·골격계 질환의 수술적 치료 및 관리법과 함께 ▲체육대학 홍완기 교수의 농업인 질환 예방을 위한 인체역학과 운동처방 ▲김재운 연구원의 자가근막이완 운동프로그램 ▲정옥환 연구원의 농업인 대상 기능적 움직임 검사 등이 이뤄져 참가자

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송한수 센터장(조선대병원 직업환경 의학과 교수)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운동재활강사 양성과정을 확대 실시하여 건강하게 농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안전보건센터는 농림축산 식품부가 지정하며, 전국에서 조선대병원,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단국대병

원, 제주대병원 등 다섯 곳이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며, 조선대병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농업인 관련 질환 연구를 수행 중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FINA) 스포츠의무위원회 조선대병원 현장 방문

개막까지 약 50여 일...조선대병원 방문하여 주요 의료 시설 점검



국 제 수 영 연 맹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FINA)과 광주광역시가 개최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막 50여 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의무위원회 반덴호헨반트 위원장이 선수단 후송병원으로 지정된 조선대병원을 찾아 의료분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5월 21일 오후 2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스포츠의무위원회(위원장 반덴호헨반트)는 조선대병원을 찾아 응급상황 발생 시, 선수단이 방문할 응급의료센

터와 중환자실을 방문하여 의료 체계를 점검하였고, 이번 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시설과 시스템에 만족을 표했다.

특히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의료총책임자인 조수형 조선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과 반덴호헨반트 위원장은 하이드다이빙 경기가 조선대학교 야외축구장에 마련되는 만큼, 경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조수형 응급의료센터장은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현장 응급조치는 물론 체계적인 이송시스템과 진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이번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물론 2002년 월드컵 지정병원, 2011년 영암 F1 코리아그랑프리대회 의료지원, 광주FC 지정병원 등 국내외 다양한 행사에 의료 지원을 펼치고 있다.



노년층에게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부정맥 질환, 심방 세동



조선대병원 순환기내과 김성수 교수

심방세동은 지속성 부정맥 가운데 가장 흔한 부정맥이며 노화와 가장 밀접한 부정맥이다. 심방세동의 유병률은 60세 이하 젊은 사람에서는 1% 미만이나,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여 80대 이후에는 8~1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심방세동 유병률 조사는 2001년도 강원도(60세 이상의 5,551명의 노인을 대상, 유병률 1.2%) 2003년 안성, 안산 지역(60~69세의 2,688명의 노인을 대상, 유병률 1.0%), 2005년도 경상남도 건강 건강 검진(60세 이상의 5,044명의 노인을 대상, 유병률 2.1%), 2015년도 광주 노인 건강 타운(60세 이상의 1,500명의 노인을 대상, 3.1% 유병률)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는 2007년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심방 세동 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광주 전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심방 세동의 유병률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확한 유병률 조사 및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심방세동은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을 5배 정도 증가시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심방세동에 의한 색전성 뇌졸중은 다른 원인에 의한 뇌졸중보다 더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유발하며, 광범위한 뇌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심방 세동의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뇌졸중을 일차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심방세

동은 가슴두근거림, 호흡곤란, 흉통, 현기증 등 다양한 증상을 수반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흔하여 심전도 선별검사를 통해 심방세동을 찾아내고 혈전색전 위험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항응고요법으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심방세동의 치료는 항상 항응고치료와 심박수 조절로부터 시작한다. 심박수 조절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으면 울동 조절 요법을 시행한다. 심박수 조절은 동율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한 계속해야 한다.

가. 항응고 치료

심방세동에서 항응고치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모든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와파린을 이용한 항응고요법이 필요한 환자의 50% 정도에서 시행되고 있고 이들 환자의 50% 정도에서만 적절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 심방세동의 울동전환 시 혈전색전이 1~2%에서 발생하고 울동 전환 후 첫 1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울동전환 방법(항부정맥제, 직류충격, 또는 도자절제)과 무관하다. 따라서 항응고치료는 방법에 상관없이 울동전환 전 3주, 전환 후 4주 이상 시행해야 한다. 혈전색전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동율동이 회복된 후에도 항응고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



부정맥 시술 모습

나. 심박수 조절 (rate control)

심방세동에 의한 증상과 혈액학적인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심실 박동수의 증가이다. 따라서 심박수만 조절하여도 환자 상태를 크게 개선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 심박수 조절은 울동 회복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대규모 연구에서 울동 조절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심박수 조절은 심방세동 환자를 처음 접할 때 항혈전요법과 함께 일차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울동 조절에 실패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한다.

급성기에는 환자 상태가 안정된 경우에는 베타차단제나 비혈관선택성 칼슘길항제를 경구로 투여하고, 상태가 불

량한 경우에는 직류율동전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다. 울동 조절 (rhythm control)

심방세동의 동율동 전환에 허가된 항부정맥제는 class IC와 III 약물이다. 적절한 환자에게 있어서 적절한 약물을 통해서 울동 조절을 시도해보고 실패시 도자 절제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도자절제술은 6주 이상 적절한 항부정맥 약물요법에도 반응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반응한 후 재발한 증상이 있는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에 대해서 적응이 되는 시술로 부정맥을 일으키는 심장 내 부위를 절제 또는 과사시켜 부정맥을 완치하거나 조절하는 치료법으로 최근 성공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각광받고 있다.

라. 생활습관 조절 (rhythm control)

국제 학술지 <Heart Rhythm>에 실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카페인 ▲수면 부족 ▲갑작스럽게 시작했거나 지나친 운동 ▲운동 부족 ▲차가운 음료 및 음식 섭취 ▲고 나트륨 식단 ▲과식 ▲탈수 ▲왼쪽으로 눕는 것 등 11가지 생활습관이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과음, 과로를 자제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카페인 많은 식음료를 제한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선대병원, 신종 감염병 대응 훈련도 실전처럼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가정...
신속한 '국가지정 음압입원 치료병상'으로의 격리 및 치료 훈련 실시



조선대병원은 6월 12일 오후 2시, 신종 감염병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초동 조치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의 격리와 치료 등 감염병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광주광역시와 동구보건소 관계자들

이 함께한 이번 '신종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은 과거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를 가정하여, 메르스 발생부터 환자 치료까지 각 단계별 준비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미비점을 서로 보완하며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날 실시한 모의훈련은 ▲ 메르스 환자 발생 ▲ 환자 응급실 방문 대처 및 국가지정 음압입원 치료병상 이송 ▲ 환자 격리 및 치료 ▲ 폐기물 처리 및 퇴원

등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뉘어 훈련이 실시되었으며, 철저한 업무 분담과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견고히 했다.

김진호 부원장은 "감염병은 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해 실시하는 훈련을 통해 위급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대응능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지정 음압입원 치료병상'의 확충과 함께 전국 최초로 선정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을 통한 완벽한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추었으며 안전한 광주광역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공헌하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글로벌 연수 의료기관 선정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2019년 상반기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글로벌 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상반기 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 중 치과는 조선대치과병원이 유일하다.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는 외국 의료 인력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의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한국의료 해외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는 10개국 24명의 외국 의료 인력

이 국내 10개 병원에 각각 배정돼 연수를 받는다.

조선대치과병원에는 5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치과의사 4명이 치과 연수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한편, 조선대치과병원은 2010년부터 해외치과의사 연수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해외 의료진 교육 아카데미인 ‘국



제 치과 아카데미(G10 IDEA, Global 10 International Dental Education Academy)’를 상표로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MKA)’ 연수 입교식 가져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손미경 병원장)은 3일 치과병원 다산실에서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MKA,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입교식을 가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이번 연수에는 인도네시아에서 3명, 필리핀에서 1명의 치과의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다음달 18일까지 7주간 연수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치과 전문과 외래진료 및 수술 참관, 환자사례, 최신 의료기술 공유 등 컨퍼런스, 연구 및 실습, 국내 전문과 학회 등에 참석하고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역사유적지 탐방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첫 2주간은 광주 국제교류센터(GIC)의 홈스테이 프로그램인 Feel@home에 호스트로 등록된 가정에서 머물며 한국 문화를 가까이 체험하고 한국의 정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손미경 병원장은 "해외 치과의사 연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의 우수한 치과의료기술을 전수·홍보하고 치과의료인력 네트워크 및 거점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해외의료진 의료교육관광 및 해외환자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2019. 5. 8. ~ 2019. 6. 30.

성명	소속	약정금액	개인별누계
(재)조선대학교치과대학교육문화재단	(재)조선대학교치과대학교육문화재단	97,950,000원	1,723,385,500원
(주)사이플러스	(주)사이플러스	2,300,000원	5,900,000원
(주)사이플러스	(주)사이플러스	500,000원	5,900,000원
(주)해마종합건축사무소	(주)해마종합건축사무소	1,000,000원	1,000,000원
광주은행		10,000,000원	3,287,512,455원
광주은행		10,000,000원	3,287,512,455원
김무영(목포기독교치과원장)	목포기독교치과의원	1,000,000원	1,000,000원
박두선	사범대학	200,000원	200,000원
박영신	사범대학	100,000원	2,441,600원
법과대학 총동창회	법과대학 총동창회	2,000,000원	2,000,000원
수완센트럴병원	수완센트럴병원	1,000,000원	1,000,000원
시엘병원-최범채	시엘병원	100,000,000원	195,000,000원
안경진	사범대학	100,000원	2,760,800
이규배	사범대학	500,000원	5,734,000
이순형	광주광역시청	990,000원	3,510,000원
이중헌	공과대학	2,250,000원	9,781,200원
익명(발전기금)	비서실 모금함	1,444,690원	1,444,690원
익전개발(주) - 문창호	익전개발(주)	1,000,000원	1,000,000원
장을재-(주)미트원	(주)미트원	1,000,000원	31,000,000원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1,000,000원	1,000,000원
정기호		1,000,000원	1,000,000원
주식회사아텍		6,000,000원	11,470,000원
현희자-대도스포츠	대도스포츠	200,000원	200,000원
합계		241,534,690원	